



[종합] SK텔레콤 매출 17.5조 신사업으로 '반등' 08



Economy

코스피	2491.75 (-33.64)	코스닥	858.22 (-41.25)
금리 (최고액 3년)	2.29 (+0.04)	환율 (원·달러)	1088.50 (+8.80) (5일)

### 서울고법 “이재용 부회장 혐의 대부분 무죄” 353일만에 ‘자유의 몸’

# ‘묵시적청탁’ 허구에 갇혀... 총수의 잃어버린 1년

## JY 항소심 선고공판

징역 2년6월·집유 4년 선고 뇌물공여·재산도피 등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년여 수감생활 끝에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14일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구속된 후 353일 만에 석방됐다.

〈관련기사 2·3면〉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얻은 목적으로 정유라 승마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 등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해왔다. 승계에 도움이 될 개별 현안으로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합병으로 인해 삼성SDI가 처분해야 하는 삼성물산 주식 축소,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전환 시도 등을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면서도 묵시적·포괄적 청탁은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이 실존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 자체가 승계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

는 증거가 없다”며 “일부 현안이 사후적으로 효과가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특검의 주장과 같이 승계 작업을 위한 현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포괄적 승계를 인지했다고 볼 수 없으며 묵시적 청탁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사사실 중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와 횡령,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등이 부정한 청탁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제3자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승계 작업에 대해 인식했다고 볼 수 없었다며 1심과 달리 묵시적 청탁도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에는 미르재단에 125억원, K스포츠재단에 79억원 등 204억원을 출연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 책임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도 무죄로 판단했으며 전지훈원과 마필 구입대금 등 78억9430만원에 상당하는 재산국외도피 혐의 역시 무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무죄가 아닌 유죄 판결이 나온 이유는 승마지원에 있다. 재판부는 마필과 차량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최순실, 정유라 등에 사용권이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마필 사용권의 가액은 산정

하지 못했다. 또한 승마지원을 위해 코어스 포츠에 제공된 용역대금 전액(36억3484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어 용역대금의 횡령을 인정하며 이

와 연관된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유죄로 봤다.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승계 작업과 부정한 청탁의 부존재,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과 합목적성, 정치권력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게 된 뇌물 제공 경위와 방법, 뇌물의 대가로 취득한 현실적 이익의 부존재,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등을 고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metroseoul.co.kr



5일 원·달러 환율은 8.80원 오른 1,088.50원으로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 금리·유가 뛰고, 원화값 치솟고 韓경제 ‘신3高’ 복병

원화 가치와 유가는 오르고 인플레이션 걱정은 커지는 ‘신(新)3고(高)’가 한국 경제의 회복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느리게 달린 자전거(한국경제)가 멈춰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달러 인덱스는 88포인트다. 선진국 간 금리차와 미국 쌍둥이 적자 등을 적용해 산출한 미 달러의 적정 수준은 98포인트

다. 덕분에 원·달러 환율은 가파르게 하락(원화값 상승)하고 있다. 올해 1월 평균 환율은 달러당 1067원으로 1년 전보다 10.0% 하락했다. 작년 12월 하락률(8.2%)보다 1.8%포인트 확대된 것이다.

하나금융투자 소재용 연구원은 “트럼프와 성향이 비슷한 레이건 대통령은 자국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플라자 합의를 통해 달러 약세를 압박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쌍둥이 적자에 대한 부담이 불가피한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및 환율보고서 등을 이용해 정책적으로 달러 약세를 용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기업은 그동안 버팀목이 됐던 환율 효과가 사라지고 원자재(원유가격) 가격까지 오르는 열악한 환경에서 수출전쟁을 치러야 한다.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0원 가량 오르면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은 8000억원 안팎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각각 연간 1조2000억원, 1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현대자동차그룹 산하 한국자동차산업 연구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할 경우 자동차업체 매출이 연간 4200억원 감소한다.

현대경제연구원 박용정 선임연구원은 “정보기술(IT),

석유화학, 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집중된 수출제품을 다변화해 원화 강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기에 유가하락까지 한국경제의 부담으로 다가 오고 있다.

지난 2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되는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65.45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국제유가를 최대 복병 중 하나로 지목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간은 각각 배럴당 80달러, 78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 원자재값 ↑... 수출戰 우려 수출 제품 다변화 필요

### 국제유가 상승 영향 휘발유값 27주 연속 ↑

### JP모건 등 월가 금융기관 올 3회 이상 금리인상 전망

유가가 하락하면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신흥국 경제에 충격을 줘 글로벌 경제에 다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이 우려된다.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이 27주 연속으로 올랐다. 또 다른 복병은 인플레이션이다.

미 노동부가 지난 2일(현지시간) 발표한 1월 고용지표에 따르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2.9%로 8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12월 미국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1.8%까지 올라갔고, 지난달 공개된 12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 근원 PCE 가격지수도 1.5% 상승했다.

이는 채권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다. 2월 2일 증가기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841%이다. /김민호 기자 kmh@



휴전벽 앞에서 5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 선수촌에서 제막한 휴전벽 앞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적혀있는 글귀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 대부업 법정금리 인하 준수 집중단속

서울시 명절기간 서민 피해 예방 이달 8일~4월30일 단속



서울시가 오는 8일 인하되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관련기사 11면〉

까지 서울시(공정경제과·민생사법경찰단), 금융감독원, 중앙전과관리소, 자치구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대부업자 준법교육 미이수와 장기 미수검, 민원유발 대부(중개)업체 96개소, 불법 스팸 광고문자 발송 의심 대부중개업체 4개소 등 총 10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법정 최고

금리(최고연24%) 준수 여부 ▲대부계약서필수기재사항(자필서명과 이자율 기재) 준수 ▲계약의 적정성 여부 ▲대부광고의 적정성과 불법 광고성 스팸문자 전송 여부 등이다.

또한 민원이 자주 발생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현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전통시장이나 상가밀집지역 등 서민들의 접촉이 쉬운 업체에 대해서는 준법영업 지도를 병행해 건전한 대부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범중 기자 joker@



# 2심 “물산 합병, 승계위한 과정 증거없다”… 1심 부인

## JY 운명가른 판결 근거는

### 포괄적 청탁·0차 독대 인정 안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서울 고법 형사13부의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목시적·포괄적 청탁에 대한 법원 판단이 1심과 달라졌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에게 승마지원 등 뇌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독대를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뇌물 합의와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는 시각이었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삼성물산 합병, 삼성SDI 처분 주식 산정, 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 시도 등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서도 목시적·포괄적 청탁은 인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견회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을 기다리며 서울 구치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회장을 대신해 그룹 경영권을 승계할 것이며 이를 이 부회장이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측이 알 수 있었던 만큼 승계 작업이라는 목시적·포괄적 청탁이 인정된다는 논리였다.

즉, 이 부회장이 삼성 총수가 될 것을 청와대가 알았고, 이 부회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이러한 판

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본 재판부 역시 명시적으로도 묵시적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1심 판결을 언급했다. 이어 “원심에서는, 포괄적 현안은 이재용의 승계 지배력 확대가 중요했고 개별 현안이 이와 관련 있다고 판단했다”며 “본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개별 현안 자체가 승계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안도 있지만 이는 사후적으로 그 효과가 확인될 뿐, 특검의 주장과 같이 승계 작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에서는 삼성 미래전략실 직원들이 이 사건에 적극 관여한 점을 승계 작업의 근거로 삼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전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포괄적 현안으로 인지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강

조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승계라는 현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1심에서는 2014년 9월 14일, 2015년 7월 25일, 2016년 2월 15일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독대에서 이러한 합의를 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자 ‘0차 독대’가 있었다는 방향으로 주장을 바꿨다.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0차 독대’를 갖고 합의한 만큼 1~3차 독대에서 별도의 합의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2014년 9월 12일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안가에 있었던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독대 관련 주요 일지는 사후에 작성됐고 두산·포스코 독대 관련 내용을 보면 문건의 사실 여부도 불명확하다. 이재용이 안가에 왔다고 확인되지 않았으며 (독대가 있었더라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0차 독대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세성 기자 sesung@metroseoul.co.kr

## 1월 외환보유액 3957.5억 달러

한은 발표… 전월比 65억 달러 늘어 ‘사상 최대치’

지난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4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등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1월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3957억5000만 달러로 전월 3892억7000만 달러 대비 64억9000만 달러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 증가한 데다 미 달러화 약세로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늘며 외환보유액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외환보유액의 93%에 달하는 국제·정부기관채·회사채·자산유동화증권 등 유가증권이 3680억4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92억1000만 달러 늘었으며 예치금은 27억9000만 달러 줄어든 178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 한줄 News

### 정책·산업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학제개편을 통해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자고 제안한데 대해 5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오는 2022년에 **국내 중견기업**이 5500개로 늘어나고 13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시킨 신형 수소 연료전지전기차(FCEV) ‘넥소(NEXO)’의 항속거리가 공개됐다.

▲ 내년부터 실제 고속도로에서 5G 통신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금융·마켓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해보험에 대한 유상증자 안건을 부결하면서 매각설이 다시 불거졌다.

▲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5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신은 무시하거나 방관할 수 없다”며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 변화를 선제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 유통&라이프

▲ 고속도로 운행 구간이 많은 광역버스에서 많은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 KT&G 차기 사장후보로 **백복인 현 KT&G 사장**이 확정됐다.

## 홈쇼핑, 스타트업 지원… 미래먹거리·상생 ‘두토끼’

롯데 ‘스켈터랩스’ 투자 조인식  
쇼핑 선진화 위해 AI 기술 접목

GS, 직간접투자 380여곳 달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넓혀

홈쇼핑업계가 신생 벤처기업에 규모있는 투자를 단행하며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있다. 국번하는 유통환경에 따라 TV홈쇼핑이라는 틀을 넘어 차세대 ‘미디어 커머스’ 도약에 나선 것이다.

### ◆롯데, ‘AI’ 스타트업 투자

롯데홈쇼핑은 5일 양평동 본사에서 인공지능 스타트업 ‘스켈터랩스’ 투자 조인식을 진행했다. 스켈터랩스는 지난 2015년 7월에 구글코리아 연구개발(R&D) 총괄 사장을 역임한 조원규 대표와 구글, 카이스트 AI 랩 출신 등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설립한 벤처 기업이다.

롯데홈쇼핑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AI)’ 등 쇼핑 경쟁에 속도를 내고자 답러닝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를 결심했다. 롯데홈쇼핑은



5일 서울 양평동 롯데홈쇼핑 본사에서 (왼쪽부터)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이사과 조원규 스켈터랩스 대표가 투자 협약 조인식을 진행한 뒤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지난 2016년부터 14개 스타트업에 100억 원의 간접 투자를 진행했다.

롯데홈쇼핑은 AI 등 새로운 IT 기술과 쇼핑을 접목한 선진화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지능화된 ‘챗봇’을 선택했다. 챗봇은 정해진 응답 규칙을 바탕으로 한 순차적 응답 시스템이 아닌 고객과의 대화에서 맥락과 히스토리를 보다 더 자세하게 이해하는 시스템이다.

이후 롯데홈쇼핑은 음성검색, 고객 맞춤형 추천 서비스 등을 선보여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에 가치를

더해줄 고객 지향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는 “롯데홈쇼핑은 스켈터랩스와의 협업으로 기술 역량 확보와 AI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보편화해 차세대 미디어 커머스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 ◆GS, 2700억원 투자

GS홈쇼핑은 지난 2011년부터 스타트업에 약 2700억원을 투자해왔다. 현재까지 GS홈쇼핑이 직간접 투자한 스타트업 기업수는 380여개

에 달한다.

사업영역도 넓혔다. 글로벌 키친웨어 브랜드 ‘월드키친’의 지분을 인수, 9.1%의 지분을 확보했다. 월드키친은 코델(식기)과 비전(내열냄비), 파이렉스(제빵기구) 등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익숙한 브랜드를 갖고 있다. 데이터 기반 마케팅 업체인 ‘페이코’에는 500억원을 투자해 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TV홈쇼핑에 집중됐던 사업영역을 데이터 기반의 모바일 커머스로 전환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또 동남아 벤처펀드인 메란티에 3000만불을 투자해 국내외 스타트업과의 교류에도 힘을 실었다.

올해는 에버콜라겐으로 유명한 ‘뉴트리’에 50억원을 투자했다. 뉴트리는 지난해 590억원의 매출을 기록, 오는 2020년에는 1000억원 매출이 기대되는 업체다.

GS홈쇼핑은 뉴트리가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판단,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자사가 보유한 해외 거점 판매를 통한 수출까지 적극 지원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중소 절반 자금사정 곤란… 상여금 지급도 줄어

중기중앙회 ‘설 자금 수요조사’  
자금사정 작년보다 나아졌지만  
불확실성 증가로 체감경기 냉랭

중소기업 10곳 중 5곳 가량은 설 자금 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0곳 중 6곳 가까운 기업은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자금 사정이 다소 좋아졌지만 상여금을 주겠다는 기업은 오히려 감소했다. 또 90%에 가까운 중소기업은 설 연휴에 4일 이상을 쉬겠다고 답했다.

1056곳을 대상으로 ‘설 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해 5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7.8%는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원활하다’는 기업은 9.3%에 그쳤다.

자금사정이 ‘곤란’한 중소기업 비율(복수응답)은 지난해(47.8%)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2016년(39.2%)보다는 여전히 높은 모습이다.

특히 ‘곤란’이라고 답한 중소기업 가운데 매출 기준 10억~30억원 이하는 50.1%, 10억원 이하는 59.4%로 규모가 작을 수록 자금사정이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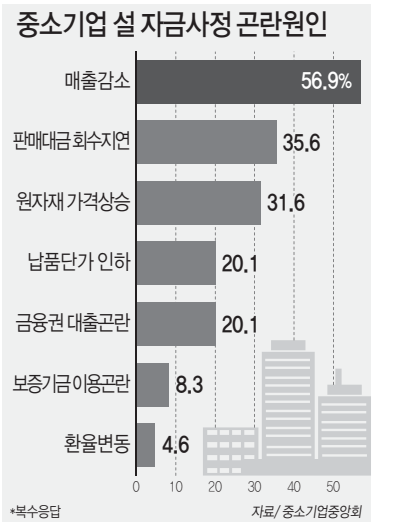
곤란한 원인으로는 ‘매출감소’가 56.9%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대금

회수 지연’(35.6%), ‘원자재 가격 상승’(31.6%)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럼에도 자금 조달 여건은 만만치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은 36.6%로 ‘원활’하다는 응답보다 25.5%포인트(p)나 높았다.

특히 응답기업의 33.6%는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대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의 대출관행’이 여전하다고 답했다. ‘신규대출을 기피’하는 경우도 29.5%에 달했다.

설 상여금을 주겠다는 기업은 56.1%였다. 이는 전년의 59.8%에 비해선 3.7%p 줄어든 숫자다.



설에 필요한 자금은 기업 한 곳당 평균 2억319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가운데 5710만원이 부족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JY가 그릴 뉴 삼성은 “M&A·4차혁명·사회공헌”

구속수감 353일만에 일선에 복귀 반도체 호황 후 대비책 마련 몰두 투자·고용확대로 일자리정책 부응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면서 삼성그룹은 경영 정상화에 시동을 걸게 됐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환경, 강화되는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 삼성의 신성장 동력 창출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건강 상태가 양호한 이 부회장이 복귀를 늦출 이유가 없다.

삼성그룹은 이날 이 부회장이 뇌물 혐의가 유죄로 판결 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1심에서 인정됐던 핵심 혐의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자 “진실이 통했다”면서 풀려난 것에 대해 안도감을 나타냈다.

이 부회장이 이날 판결로 지난해 2월 17일 구속수감된 지 353일 만에 경영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3년 넘도록 와병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부회장마저 구속되면 삼성그룹은 ‘총수 부재’의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야 했다.

이 부회장이 집유로 풀려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룹 계열사들은 치열한 기업 간 글로벌 경쟁에 다시 본격적으로 뛰어 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약 1년간 경영 일선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사장단 인사나 주주환원 확대, 주식 액면분할 등 주요 경영 현안은 옥중에서도 재판에 대응하는 와중에서도 꾸준히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신속한 경영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 그동안 사실상 중단됐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인수합병)와 대규모 투자 등이 활기를 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IT·전자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인공지능(AI),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사물인터넷(IoT) 등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이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M&A가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자동차 전장(전자장비)업체인 ‘하만’을 인수한 뒤 굼직한 M&A가 실종된 상황이 었다.

또 삼성전자는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장기 호황)’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도 ‘반도체 호황 이후’에 대한 대비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총수 부재로 인해 대형 M&A에 대한 결단이 어렵다고 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석방까지 주요 일지	
2017년	
1월10일	특검, 제2의 최순실 태블릿PC 속에 삼성 직원금 관련 이메일 문서 다수 발견 발표
12일	특검, 이재용 부회장 피의자 소환 발생 조사
16일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19일	법원, '뇌물-횡령' 이재용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
2월3일	특검,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
10일	특검, 정재찬 공정위원장 소환조사
13일	이재용 부회장 2차 소환조사
14일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 영장 재청구
17일	법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28일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 기소(뇌물공여 등 5개 혐의)
3월	법원, 3차례 공판준비기일 진행
4월7일	이재용 부회장 정식 공판
~8월4일	(매주 2~3차례씩 52차례 진행)
7일	이재용 부회장 등 결심공판 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및 삼성 전직 임원 4명 징역 10~7년 구형
25일	법원, 이재용 부회장 1심 징역 5년 선고 및 모든 혐의 유죄 인정
12월27일	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2심도 징역 12년 구형
2018년	
2월5일	법원, 이재용 부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353일 만에 석방

소해한 만큼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 글로벌 M&A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투자와 고용 확대 등의 조치도 있을 수 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해 그룹 차원에서 투자나 고용 확대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지난 1988년 3월 22일 창업 50주년 기념식에서 ‘제2창업’을 선언한 지 30년만에 이 부회

장이 다음달 ‘제3창업’을 선언하며 삼성의 새로운 청사진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신뢰회복을 위한 경영행보도 예상된다. 이번 사태가 과거 관행처럼 여겨져 온 정경유착에서 비롯된 만큼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가 재판 중에 ‘헌신’ ‘나누는 참된 기업인’ ‘사회에 대한 보답’ 등을 수차례 언급한 것도 이런 자성론을 토대로 신뢰회복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인용 사장이 삼성 봉사단장에 임명된 후 “저희가 상당한 규모로 (사회공헌 예산을) 집행해 왔지만, 한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사회에서 ‘삼성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뚜렷하게 떠오르는 게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고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혀진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상생협력’, ‘동반성장’을 위한 추가 방안과 함께 최근 강조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이날 석방을 계기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으나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하는 만큼 활동에 제약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의 국내외 경영 활동들을 꼼꼼히 챙겨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은미 기자 21cindun@metroseoul.co.kr

## 재계 “국가경제 도움… 미래사업 추진 기대”

### 재계·외신들 반응

영국FT·BBC 등 외신들 일제 속보

재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석방된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이날 “재판부에서 사법기준에 따라 판단한 결과로 본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의 글로벌 경영이, 특히 4차산업 혁명기의 대응전략과 미래 신사업이 더욱 과감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전무도 “이

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대외 신인도 회복, 경영 활성화 등의 효과는 개별 기업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삼성이 이번 재판 과정을 무겁게 받아들여 투자,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역할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오해들이 상당부분 해소된 만큼, 삼성그룹은 경영공백을 매우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안근배 무역정책지원본부장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그룹은 무역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 “우리사회에 만연된 정경유착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우리경제를 둘러싼 글로벌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에 대한 장기 구속수사는 해당기업과 전제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외신들도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소식에 긴급 속보로 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삼성의 사실상의 리더인 이재용이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지 약 1년 만에 풀려나 한국 최대의 대기업에 강한 안도감을 선사했다”고 전했다.

BBC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옥에서 해방됐다”는 속보와 함께 그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실시간으로 현

장 소식을 전한 블룸버그통신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353일 만에 풀려났다”고 보도했다.

/정은미 기자

## JY 첫 행선지 ‘이건희 회장 병실’… 첫 공식행보 ‘평창 올림픽’

글로벌기업 CEO 교류 등 전망

1년 만에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행선지는 이건희 회장이 와병 중인 삼성서울병원이었다.

이 부회장은 5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은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개인물품을 챙겨 나온 뒤 기자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1년간 나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고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친인) 이건희 회장을 보러 가겠다”고 말한 후 차량에 탑승해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으로 이동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지난 1년여간 이 부회장은 부친 이건희 삼성 회장을 만나지 못했다.

재계는 이 부회장이 경영일선에 바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의 첫 공식행보 일정은 오는 9일 개막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평창동계올림픽의 공식파트너다. 이건희 회장을 필두로 이 부회장도 올림픽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구속 수감으로 이렇다 할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개막식 등 주요 행사에 직접 참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속으로 정체된 글로벌 스킨십을 회복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택할 것이라

관측도 있다. 이 부회장은 구속 전에도 미국 선벨리 콘퍼런스 출장은 물론 해외에서 삼성을 방문하는 글로벌 기업의 대표들을 만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장기간 공백으로 글로벌 기업 CEO와의 네트워크 교류가 단절된 만큼 해외 출장 등을 통한 글로벌 행보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달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18’이 첫 행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이라 불리는 중국 보아오포럼의 참석이 전망된다. 보아오포럼 이사회에는 세계 각국의 정·재계 인사들이 활동 중이다. /정은미 기자

## 제53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2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3월7일~3월29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3월10일~3월31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3월 18일(일), 3월25일(일), 3월27일(화)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521-9111 (강남역 5번출구)



# 文, IOC 총회 개막식 참석... ‘평창 외교전’ 본격화

北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만남 관심  
“핵 문제 평화적 해결 좋은 전기”

9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방남하는 북한의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북한 헌법상 행정 수반인 김 상임위원장은 지금까지 남한을 찾은 북한 인사 중 최고위급이자 현재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가장 고위급 인사로 평가 받는다. 이에 따라 방남 기간 중 문 대통령과 공식적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경우 향후 남·북한 관계 발전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으로 방한한 루이스 알베르토 모레노 미주개발은행(IDB) 총재를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접견한 뒤, 저녁엔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IOC 총회 개회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평창 외교전’에 본격 돌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김 상임위원장 방문은 남북관계 개선과 올림픽 성공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반영됐고 북한이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어젯밤(4일)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으로 방한한 모레노 미주개발은행(IDB) 총재를 접견하는 것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맞이 외교 행보를 본격 시작했다. (왼쪽부터) IDB 양행 메하야 아시아 자문관, 모레노 총재, 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늦게 통보받았고, 오늘 대통령을 비롯한 실무진들이 어떤 수위에서 어떤 내용을 갖고 만날 것인지 현재 논의 중이어서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전날 밤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내 김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단원 3명, 지원 인원 18명으로 구성된 고위급 대표단이 9~11일 우리측 지역을 방문할 계획임을 알렸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모레노 IDB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IOC가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단일팀 구성을 허용했다”면서 “덕분에 평창올

림픽은 흥행에서도 성공할 것이고, 남북 관계개선과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서도 좋은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남미의 경제대통령’으로도 불리는 모레노 총재는 평창에서 열리는 IOC 총회와 동계 올림픽 참관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았다.

모레노 총재는 문 대통령에게 “한국은 탁월한 교육체계를 보유하고 있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많다”면서 “이 젊은이들이 중남미에서 경험을 쌓고 성장한다면 글로벌한 인재로 활약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미국엔 히스패닉계가 많은 만큼 미국

도 (한국 젊은이들의) 활동무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이 올림픽 사상 가장 빛나는 대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모레노 총재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이날 저녁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강릉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 132차 IOC 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올림픽 개최국의 대통령으로서 숭가쁜 일정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 내외는 총회 개회식에 앞서 강릉 세인트존스 경포호텔에서 열린 ‘올림픽 개최국 정상에 대한 IOC 위원 소개

행사’에 참석, 동계올림픽과 IOC 총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IOC 위원들을 일일이 소개받으며 따뜻한 환영인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뒤이어 치러진 총회 개회식에는 IOC 위원, 국제스포츠연맹(IF) 및 차기 올림픽조직위원회 관계자 등 IOC 초청 인사들과 함께 국내에서 초청된 인사 등 800여명이 참석해 한반도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했다.

IOC 총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IOC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올림픽이 있는 해에는 올림픽 개최국에서 총회도 함께 열린다. 또 총회 개회식엔 개최국 국가 정상이 참석해 IOC 총회의 개최를 축하하는 것이 관례다.

문 대통령은 개회식 축사에서 “이번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두터운 신뢰와 지지를 보내준 바흐 위원장을 비롯한 IOC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평화를 향한 평창의 도전과 성공을 통해 전 세계가 올림픽 정신의 위대한 가치를 느끼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창올림픽의 성공이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으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이어져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발전, 더 나아가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면 올림픽 역사에 가장 의미 있는 ‘올림픽 유산’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일본과 중국, 아시아의 모든 나라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바른정당-국민의당 합쳐 ‘미래당’

통합안 의결... 13일 합당 마무리

바른정당이 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의 통합안을 의결했다.

바른정당은 통합과 개혁을 중심으로 ‘정의로운 나라, 따뜻한 공동체’라는 가치를 앞세워 양당 중심의 기존 정치 구도를 깨는 게 합당의 정치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당은 지난 2일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합당 후 당 명칭을 ‘미래당’으로 결정했다.

유 대표는 이날 전대 개회사에서 “낡고 부패한 구태 정치와 결별하고, 한국을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면서 “개혁 보수를 추구하는 바른정당과 합리적 중도를 추구하는 국민의당이 힘을 합쳐 낡고 병든 한국의 정치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지역주의라는 구태를 반드시 극복하고 동서가 화합하는 정치를 하려 한다”면서 “제가 안 대표와 약속한 새로운 정치는 개혁적 보수의 뜻과 가치를 그대로 담고 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지금 우리는 죽음의 계곡을

지나고 있으며, 좁고 어두운 계곡에서 단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전진하겠다”면서 “제가 맨 앞에 서서 이 계곡에 들어섰고, 언젠가 빠져나올 때는 여러분의 맨 뒤에서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대에서는 ‘국민의당과의 합당 결정’, ‘합당 수임기구 설치’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

바른정당에서 정병국 당원대표자회의 의장, 오신환 원내대표, 하태경 지상욱 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의당에서 김관영 사무총장이 축하차 방문했다.

오는 13일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전대 격인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합당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법적 합당 절차가 모두 끝나면 지난해 1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탈당파가 주축이 돼 구성된 바른정당은 출범 1년여 만에 사라지고 미래당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미래당은 출범과 함께 지역주의 극복의 목표를 천명하기 위해 각각 호남과 대구 출신인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 부의장과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의 공동대표제도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국회, 경제계 이해도모 상시협력채널 구축

국회가 경제계와 주요 입법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상시협력채널을 구축키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5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해 국회 사랑제에서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90분 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박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측 참석자들이 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해당 상임위원장이

이 소관 사안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빅데이터산업 활성화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규제개선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신산업 규제 개선 ▲서비스산업 발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이 이뤄졌다. 특히 국회는 ‘위치정보보호법’ 개정 등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un@

## “아동수당 등에 ‘지역화폐’ 도입 필요”

(상품권)

지역화폐 자영업자 지원 방안 논의  
기초연금 30% 지역화폐로

올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의 불만이 극심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동수당 등 사회임금 및 복지수당을 일부 연동해 지역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놴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이들의 불만을 해소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맞닿은 정책으로 평가된다.

현재 우리나라 민간 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두루’, ‘성남사랑상품권’, ‘은누리 상품권’ 등 지역화폐를 공급해 사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주최하고 이를 골자로 하는 지역 화폐를 통한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운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역화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소득을 높이는 방안으로 주요하게 검토했던 핵심 경제정책”이라며 “자영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소득증대 방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각의 우려를 정면 돌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조 울산과학대 교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도입(기초연금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기초 연금의 30%를 상품권형 지역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박광운 의원(왼쪽 다섯 번째) 등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했다. /박광운 의원실

화폐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역화폐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 방식보다 지역 내 생산 및 부가가치, 고용 유발 효과 등에서 모두 112~113% 수준으로 증가한다”며 지역 골목상권 전용화폐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의 30%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기존의 현금 지급 방식보다 지역에서 더 큰 효과가 나온다”며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거시경기가 부양되고 국민경제가 순환한다는 로드맵의 출발이 바로 지역화폐”라며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근로장려금,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으로 쓰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아동수당 등 사회 임금과 공무원 복지 수당을 지역에서 사용

토록 하면 지역경제에 돈이 도는 선순환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며 “이와 함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임대료 인하 등 보호 대책이 함께 추진된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아닌 투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기초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인상에 5년간 56조2000억원을 투입하며 141조3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54조원의 소득창출 효과, 121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며 “아동수당의 경우 5년간 9조5000억원을 투입하면 생산 유발효과 24조원, 소득창출 효과 9조2000억원, 20만6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고 예측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는 103조원으로 소득창출 효과 39조3000억원, 직·간접적 고용 창출 효과 88만1000명으로 추산했다.

/이봉준 기자 b35sea@



# 美 악재로 코스닥 4.59% ‘뚝’... “韓 증시 영향 제한적”

(채권 금리 급등)

외국인 4547억원 ‘매도 행진’  
아시아시장 후폭풍에 초긴장

‘트럼프플레이션(Trumpflation·트럼프발 인플레이션)’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휘청이고 있다. 패닉(공황)에 빠진 주식·채권 투자자들은 금융시장에서 한 발 빼는 모양새다. 미국의 임금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인상(미국 기준 금리) 시기가 앞당겨질 것인 공포감이 전 세계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것. 시장에 선 지금이라도 보유 자산(채권·주식)을 던져야 할지, 아니면 조만간 진정되길 기다려야 할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점증하는 ‘플래시 크래시’ 공포

5일 주식시장에서 코스닥지수는 41.25포인트(4.59%) 급락한 858.22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지수도 33.64포인트(1.33%) 내린 2491.75에 마감했다. 외국인들은 이날 코스피시장에서만 4547억원을 팔아 2월 들어 1조1993억원어치를 시장에 던졌다.

원·달러 환율은 8.8원 오른 1088.5원에 마감했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닛케이평균주가)가 2.55% 하락한 것을 비롯해 대만 가권 등 아시아시장도 선별적으로 ‘블랙먼데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33.64포인트(-1.33%) 하락한 2,491.75으로 마감한 5일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41.25포인트(-4.59%) 하락한 858.22로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8.80원 오른 1,088.50원으로 장을 종료했다. /뉴스1

이’였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국제 금리를 자극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일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2.84%를 기록했다.

주리엔 터머 피델리티글로벌 매크로담당 전무는 “이번 증시 폭락은 금리 문제”라며 “주식시장이 마침내 채권금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 이상재 연구원은 “올해 장기 시장금리의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되면 뉴욕 증시에서도 경제성장세보다

금리 상승세가 강해지는 구도가 형성돼 추세 하락 국면인 역금융장세로 반전될 수 있다”면서 “글로벌 증시에서 주목할 것은 글로벌 경제의 양호한 성장보다 새로운 반전요인인 미 장기 시장금리의 상승세 지속 여부”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 이후 제기돼 온 국제 가격의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순간 폭락)’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의 추가 하락에 대해선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미국 고용 지표 호조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2.8%를 넘어섰으나 그 기저에 경기 회복세가 있어 코스피 흐름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나 증시는 시차를 두고 점차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美 금리인상 본격화될 땐 ‘퍼펙트 스톰’ 우려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그냥 넘기기에에는 썩썩하다. 약셀 웨버 UBS 회장·전 독일 중앙은행 의장은 “올해 인플레이션이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1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2.9% 올라 8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트럼프플레이션과 맞물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횡수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추가 4차례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한·미 간 금리 역전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그 자체로 한국 경제 큰 부담이다.

금융시장엔 직접적인 충격이 우려된다. 1990년 이후 미국은 크게 세차례 금리

를 올린다. 그때마다 한국 증시는 독감을 앓았다. 국제금융센터 자료에 따르면 1994년 2월 4일 연준이 금리를 3.0%에서 3.25%로 처음 올린 뒤 코스피는 43일간 11.7% 하락했다. 또 1999년 6월30일(4.75%→5.00%) 이후에는 62일간 23%, 2004년 6월30일(1.00%→1.25%) 뒤로는 80일간 23.1% 주저앉았다.

기업들이 걱정하는 것은 ‘금리 상승→자금조달위축(부채질벽)→투자감소→경쟁력 약화→재무리스크(부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금리인상은 수출에도 부담이 된다. 원화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서다.

한편 14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도 걱정이다. 그 위험성은 경험적으로 잘 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가 순간의 정책 실패나 외부 충격과 결합할 때 충격은 핵폭탄급으로 돌변한다. 세계 경제사를 봐도 심각한 경기침체는 가계 빚에 있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전주곡이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위기는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와 만나 터진 대표적인 사례였다. 1990년대 시작된 일본의 장기불황 역시 경기 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이 부동산 관련 대출 확대에 이어졌다 이는 결국 자산거품이 꺼진 원인이 됐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KT&G

IBK기업은행

## 차기사장 후보, 백복인 확정

(現 사장)

## VS “주주총회에서 연임 반대할 것”

###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 여부 결정

KT&G 차기 사장후보로 백복인 현 KT&G 사장이 확정됐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는 5일 백복인 현 사장을 차기 사장후보로 선정해 이사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에 열릴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결정되면 백 사장은 향후 3년 임기동안 KT&G를 이끌게 된다.

사추위는 “사업에 대한 장기비전 및 전략, 혁신 의지, 글로벌 마인드 등에 대해 심사를 벌인 결과 백복인 사장을 최적임자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산업 전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지난 3년간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리더십 측면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KT&G의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공채 출신 첫 CEO인 백복인 사장은 1993년 입사 이후 26년 동안 전략, 마케팅, 글로벌, 생산·R·D 등 주요사업의 요직을 거치며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아 왔다.

지난 2015년 KT&G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글로벌 사업을 집중 육성하여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끝에 지난해 ‘해의 매출 1조원 시대’를 열었다.

국내 시장에서는 전자담배 시장이 급격히 확장되는 가운데, 권련형 전자담배 ‘릴(iii)’을 성공적으로 출시해 시장에 안착시키는 등 굵직한 현



백복인 KT&G 사장. /KT&G

안들을 추진력 있게 이끌어왔다.

백 사장은 국내의 현장에서 다진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 현장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기획력과 스피디한 업무 추진력이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백복인 사장은 “회사가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 놓여있는 가운데 차기 CEO 후보로 선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해의 사업 강화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해 명실상부한 국민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회사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경영참여’ 공시... 선임 절차 비판

IBK기업은행이 KT&G 백복인 사장의 연임에 제동을 걸었다. 기업은행은 KT&G의 2대 주주로 경영참여 선언과 함께 다음달 열릴 주주총회에서 백 사장의 연임에 반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2일 KT&G의 지분 보유목적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꿨다.

KT&G의 지난해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주주는 9.89%를 보유한 국민연금이며, 기업은행(지분율 7.53%)과 퍼스트이글인베스트먼트(5.48%), 블랙록(5.47%) 등이 KT&G 지분을 5% 이상 들고 있다. 이달 1일 기준으로 기업은행의 KT&G 지분율은 6.93%다.

기업은행이 경영참여를 선언한 이유는 최근 진행된 KT&G의 사장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KT&G의 사장 선임과 관련해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사장추천위원회가 일정을 강행해 ‘경영참여’ 공시를 추진하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KT&G 사추위는 이날 사장 선임을 위한 면접을 거쳐 기존 백복인 사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만약 선임 안건이 주주총회를 통

과하면 백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KT&G는 지난달 30일 저녁에서야 사장 공모를 위한 공고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서류 접수는 단 이틀만 받았다. 이후 하루 만인 2일 서류 심사를 완료하고, 이날 최종 후보를 선정했음을 감안하면 모든 절차에 걸린 기간은 단 5일에 불과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KT&G 주식 매각 방침을 철회한 만큼 경영투명성 등을 위해 주주로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주총에서 백 사장의 연임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는 것과 함께 사외이사 선임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분 보유목적 경영참여로 바꾸면서 기업은행은 KT&G에 이사와 감사의 선임·해임, 정관변경, 배당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백 사장의 연임 여부는 주총 표결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국민연금과 기업은행, 외국계 투자자 등 5% 이상 주주들의 지분율은 30%에 달한다. 그간 백 사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전 임직원들의 고발 등을 고려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등을 돌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해 9월 KT&G 주식의 매각 결정을 철회한 바 있다. 매각을 통한 일회성 이익 효과보다 자기자본비율 제고와 추후 배당수입 등을 감안해 계속 보유하는 것이 경영상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설 상차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1%↓

(서울 기준)

서울 전통시장의 설 상차림 가격이 대형마트보다 약 21%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서울 시내 25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가락물 등 61곳의 설 상차림 비용을 조사해 5일 발표했다.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 25명은 지난달 29~30일 통신시장과 광장시장 등

전통시장 50곳, 대형마트 10곳 등을 방문해 설 성수품 36개 품목의 소매 비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17만5600원, 대형마트는 22만2760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1%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락시장 내 가락물에서의 구매비용은 16만2960원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비해 각각 7%, 27%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 성수품 구매비용은 전년 대비 전통시장 1.8%, 유통업체 2.3% 상승했다. 전통시장은 지난해에 비해 채소류와 과일류는 하락, 수산물과 가공식품, 축산물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사는 점차 단출해지는 차례상차림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사)한국전통음식연구소 자문과 서울시민 대상 설문(간소화 의향 있음: 67%) 결과를 반영해 조사

단위를 정했다. 사과·배·단감은 각 5과에서 3과, 부세는 3마리에서 1마리, 동태살은 1kg에서 500g, 전 부침용 육류(쇠고기·돼지고기)는 각 600g에서 200g, 달걀은 기존 30개에서 10개 등으로 조정했다.

공사는 설 성수품 가격은 전년 대비 생산량이 많아 전반적인 시세는 약보합세일 것으로 예상했다. 배는 산지 물량이 많아 공급이 원활하고, 시세는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감은 저장량이 적어 강세를 보이고, 제수용 대과 위주의 강세 형성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배추·무 등 채소류는 한파의 영향으로

전주대비가 가격이 급상승하고, 피해가 심한 무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물량의 반입이 늘어 품위별 가격 편차가 클 전망이다.

동태와 명태로는 러시아산 반입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비축물량 방출로 보험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내산 쇠고기는 설 연휴가 짧고 출하 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시세는 안정적인 전망이다. 국내산 돼지고기(얇다리살)는 출하량 감소가 예상돼 강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공사는 내다봤다. /이범중 기자 joker@



# 달러 주도 세계 경제가 韓 위협... “체질 개선 기회로”

## 달러의 힘, 新통화전쟁

###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교훈 (끝)

일본보다 산업경쟁력 지수 낮아  
자산가격폭락→경기위축 악순환  
한계 중산층 추가 붕괴 등 염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고한 달러화 제국에 약간의 균열이 생겼지만 트럼프 정부 이후 달러가 주도하는 세계 경제 질서인 이른바 ‘팍스 달러리움(Pax Dollarium·달러에 의한 경제 질서)’이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선 힘의 논리(달러 약세 유도)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일본 처럼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달러 값이 오르면 최악의 경우 외환위기를 걱정해야 하고, 달러 값이 떨어지면 수출기업들이 걱정이기 때문이다.

#### ◆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교훈

통화전쟁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근간한다. 그는 중국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이 외환시장 개입, 자국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 국제 수준에 맞지 않는 노동·환경 기준 등이 미국 경제(특히 제조업)



달러가 주도하는 세계 경제 질서인 이른바 ‘팍스 달러리움(Pax Dollarium·달러에 의한 경제 질서)’이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다.

를 쪼먹고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의 경우 달러약세는 치명적이다.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올해는 ‘플라자 합의’(1985년) 33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미국 일본 등 G5(주요 5개국)는 달러화 강세를 바로 잡기로 합의한다. 플라자 합의의 직접적인 배경은 달러 강세에 따른 미국의 무역적자 급증이다.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강세, 달러화

약세’가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엔화 가치는 달러당 240엔에서 1년 만에 150엔까지 치솟았다. 일본은 플라자 합의 후유증으로 ‘엔고 불황’과 ‘버블(거품)경제 붕괴’ 등 구조 변화를 겪게 된다. 급속한 엔화 강세로 자동차, 전기 등 수출대국 일본을 떠받쳐온 제조업의 해외이전도 가속화했다. 당시 일본 재무부장관이었던 다케시타 노보루가 플라자 합의가 ‘잃어버린 20년’이란 악몽으로 이어질 줄 알았다면 생각을 달리 했을 것이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4%’ 고성장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노믹스와 글로벌 통화전쟁발 ‘환율’ 압박은 한국경제의 위협요인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산업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산업연구원 ‘수출 빅데이터를 이용한 한국 산업의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 한국의 산업경쟁력 지수는 16위에서 13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숙련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비중으로 분석한 산업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이 20위권에 머무는 동안 중국은 같은 기간 산업경쟁력이 20위에서 3위로 치솟았다. 일본은 20년 전보다 두 계단 떨어졌지만 세계 5위를 지켰다. 특히 한국은 산업응집력 지수에서 20년간 21위에서 25위로 오히려 밀려났다.

최악 시나리오는 자산 버블이 꺼지는 것이다. ‘자산 가격 폭락→소비 위축→기업투자 감소→경기 위축’이라는 악순환 고리로 이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 경제는 한동안 고물가·저성장이 함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늪에 빠져들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중위소득 50~100%에 속하는 한계 중산층이 추가 붕괴할 것으로 염려된다.

#### ◆ 체질 개선 기회로

문제는 선듯 외환시장 개입에 나설 수도 없는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 중인 한국 정부가 쓸 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경험적으로도 별 재미를 보지 못했다. 1996년~1997년 사이에 외환당국은 외화부채의 원화가치를 낮추기 위해 비싸게 사들인 막대한 달러를 시장에 풀었다. 이는 결국 97년 11월 외환위기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명박 정부때도 한차례 환율 폭풍에 홍역을 치렀다. 강만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이 ‘낙수효과’를 이유로 시장에 개입한 것. 외환시장 개입에 나설 때 내 걸었던 낙수효과는 없었다. 일반 서민들은 물가 상승과 대기업 중심의 부의 편중, 확대되는 소득격차로 인해 오히려 심한 절망감을 느껴야 했다. 중소기업 또한 키코 사태로 인해 많은 도산의 아픔을 겪기도 했다.

넉놓고 있어야 할까.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주문한다.

윤만호 전 산은금융투자 사장(EY한영 상임고문)은 “태슬라, 제너럴 일렉트릭(GE) 등 글로벌 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연구개발(R&D), 설계 등의 영역에 치중하는 반면, 한국은 부가가치가 낮은 조립, 생산 등의 영역에 치중해 있다”며 저부가가치에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의 사업재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기업들이 사업재편 가속화,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기술력 확보, 이종산업 간 생태계 구축, 디지털 혁신 등을 주문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 “특화은행 연내 문 열 것... ‘혁신도전자’ 나와야”

### 최종구 금융위원장

#### 대학생·청년창업가 등과 간담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변화가 부족한 기존 금융산업에 경쟁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혁신도전자’가 출현하도록 진입 문턱을 과감히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대학생과 청년 창업가 등과 가진 ‘진입규제 개편방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혁신도전자들이 금융업 테두리 안으로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우선 금융 당국은 진입 장벽을 낮춘 특화금융사 설립을 추진한다.

금융 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앞서 최 위원장은 정조 임금이 시전상인이 독점하던 상업 활동을 다른 상인에게도 허용한 조치인 신해통공에 빗대어 금융산업의 무술통공을 추진하겠다고 선언

한 바 있다.

은행은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고객 특성에 맞는 특화은행이 설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토록 한다. 보험은 소액 단기보험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온라인 소규모 보험판매를 허용한다. 아울러 온라인 전문보험사의 자본금요건을 완화하고 그간 신규진입이 부진했던 생명, 연금, 상해 등에 대해서도 특화보험사를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사모증권 중개전문 등 특화증권사는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 자본금요건도 현재의 2분의 1 이하로 완화, 가령 증권에 대한 중개업 자본금요건을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춘다.

자문·일임업은 등록 단위를 통합·간소화한다. 신탁업은 인가단위를 관리, 운용, 개발형 등으로 구분해 업무의 위험도

를 세분화하고 자본금요건도 반절 이하로 내린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신규 진입이 없어 기존 금융회사의 이익이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던 부동산신탁회사의 신설도 허용한다.

금융위는 또 적극적인 진입이 가능하도록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도입한다.

최 위원장은 “그간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진입정책 결정이 담당자 재량에 의해 보수적, 칸막이식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의 시각이 있었다”며 “외부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경쟁이 부족한 영역엔 적극적으로 신규진입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낮아진 진입 문턱을 넘는 과정도 투명하게 하겠다”며 “현재 업권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규정된 심사대상의 범위, 심사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공정위, 대기업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자구노력’ 인정

### 현대차·SK 등 10곳 ‘바람직’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제계에서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 구조 개편 사례를 분석·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의 자구노력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으며, 이번 분석을 토대로 기업 측의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분석 및 평가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사례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재계와의 간담회 이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 지배구조 개편을 일관되게 촉구해 왔다.

지난해 6월 23일 4대 그룹 전문 경영인



### 공정거래위원회

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인들 스스로 선제적인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2일 진행된 5대 그룹과의 2차 간담회에서는 일부 기업들의 선도적인 노력을 평가하면서 자발적 개선에 더욱 분발하여 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4대 그룹 정책 간담회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소유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한 곳은 10개 대기업집단으로 파악됐다.

5대 그룹 중에서는 삼성을 제외한 현대차, SK, LG, 롯데 등 4개 집단이 구조 개편안을 발표·추진했다. 6대 이하 그룹에서는 현대중공업, CJ, LS, 대림, 효성, 태광 등 6개 집단이 구조 개편안을 발표·추진했다.

공정위는 각 기업집단의 소유 지배구조 개편 내용을 ▲소유 구조 개선 ▲내부거래 개선 ▲지배 구조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소유 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롯데, 현대중공업, 대림은 올해 중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롯데와 효성은 기업집단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LG, SK, CJ, LS는 기존 지주회사 전환 집단으로서 지주회사 구조를 개선하거나 개선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내부거래 개선과 관련하여는 대림, 태광이 총수일가 지분을 처분했거나 처분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림은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에 대해 올해부터 신규 계열사 거래를 중단하고 기존 거래를 정리할 계획이다.

지배 구조 개선과 관련하여는 SK는 SKI노베이션과 (주)SK에 각각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전자투표제란 주주가 주주총회 출석 대신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벌비즈(2018년), 현대차·기아차(2019년), 모비스(2019년)에

사외이사 주주 추천 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최근 발표하거나 추진 중인 구조 개편 사례들은 소유지배 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이 발표한 구조 개편 방안들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차질없이 실행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다른 대기업집단으로도 적극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업집단이 변화해가는 모습을 반기별로 분석·평가하여 이번처럼 공개할 예정이며, 일감몰아주기 조사 등 공정거래법의 엄정한 집행과 함께 총수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한양사이버대학교  
www.hycu.ac.kr

당신에게도  
너무우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 한양사이버대학교 2018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모집기간 2018년 1월 24일(수) ~ 2018년 2월 13일(화)

한양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 go.hycu.ac.kr | 문의전화 : 02)2290-0082



인문사회 계열	상담심리학부(상담심리학과, 미술치료학과, 청소년상담학과), 아동학과, 교육공학과, 영어학과, 일본어학과, 부동산학과,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시설경영전공, 사회복지서비스전공, 사회복지상담전공), 보건행정학과, 법학과, 경영학부(경영정보학과, 글로벌경영학과, 마케팅학과, 서비스생산물류학과, 인사조직·전략벤처학과, 재무회계세무학과), 경제금융학과, 광고미디어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관광호텔경영학과, 호텔조리외식경영학과), 실버산업학과	공학계열	컴퓨터·정보보호공학부(컴퓨터공학과, 해킹보안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부(전기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기계자동차공학부(기계제어공학전공, 자동차IT융합공학전공),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디자인계열	디자인학부 (공간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뉴미디어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디자인기획전공)	



# SK텔레콤, 매출 17.5조... 신사업으로 3년만에 '반등'

미디어·IoT 등 신규사업 매출 증가  
5G 경쟁력 확보 전사적 역량 집중  
AI 생태계 확대·성능 고도화 계획

SK텔레콤이 미디어, 사물인터넷(IoT) 등 신규사업 매출 증가에 힘입어 3년 만에 매출 반등에 성공했다.

SK텔레콤은 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 17조5200억원, 영업이익 1조5366억원, 순이익 2조6576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매출은 미디어·IoT 등 신규사업 매출 증가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그 결과 SK텔레콤은 지난 2014년 이후 3년 만에 매출 턴어라운드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영업이익은 미디어 사업 성장과 11년간 수익성 개선 영향으로 0.1% 증가했다. 다만, 마케팅비가 발목을 잡아 예상치인 1조6000억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순이익도 SK하이닉스의 지속적인 실

〈연결 손익계산서 요약〉 (단위: 억원)

구분	전년대비(YoY)			전분기대비(QoQ)		
	2017년	2016년	증감률	'17.4Q	'17.3Q	증감률
매출(영업수익)	175,200	170,918	2.5%	44,973	44,427	1.2%
영업이익	15,366	15,357	0.1%	3,104	3,924	△20.9%
당기순이익	26,576	16,601	60.1%	6,606	7,930	△16.7%
EBITDA	47,836	46,034	3.9%	11,424	12,090	5.5%

〈별도 손익계산서 요약〉 (단위: 억원)

구분	전년대비(YoY)			전분기대비(QoQ)		
	2017년	2016년	증감률	'17.4Q	'17.3Q	증감률
매출(영업수익)	124,680	123,505	1.0%	31,139	31,565	△1.4%
영업이익	16,977	17,822	△4.7%	3,753	4,207	△10.8%
당기순이익	13,311	12,173	9.4%	1,501	4,787	△68.6%
EBITDA	42,012	41,369	1.6%	10,159	10,493	△3.2%

\*전분기 대비 당기순이익 감소는 SK차이나 현물출자로 인한 기저효과. /자료=SK텔레콤

적 효과에 따른 지분법 이익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0.1% 늘었다.

이동전화 매출은 전년보다 0.5% 늘어난 10조8650억원을 기록했다.

회사 측은 "이동통신사업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등 수익 감소 요인에도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 확대와 데이터 사용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견조세를 유지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SK텔레콤 전체 가입자는 3020만명을 기록하며, 3000만 명을 돌파하는 성적을 거뒀다. 이 중 LTE 가입자는 지난해 말 대비 179만명 증가한 2287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5.7%를 차지했다. 또 LTE 가입자 기준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은 전년 대비 0.8GB가 늘어난 6.0GB를 기록했다.

다만, 무선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4분기 3만5209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0.4%, 전 분기보다는 0.8% 줄었다.

미디어·IoT 등 신사업은 눈에 띄는 성과를 기록했다.

SK브로드밴드는 기가인터넷·인터넷TV(IPTV) 가입자 확대 및 주문형비디오(VOD) 매출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한 3조501억원의 연간 매출을 기록했다. 또 IoT 솔루션 매출 등을 포함한 SK텔레콤 별도 기타 수익도 전년 대비 10.8% 늘어난 9787억원을 기록했다.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의 월간 실 사용자수는 지난해 8월 11만명에서 12월에

는 211만명으로 늘었다.

SK텔레콤은 올 한해 5G 경쟁력 확보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미디어 영역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홈서비스 확대와 콘텐츠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IoT 영역에서는 다양한 비즈니스에 자사의 역량을 집중해 신규 비즈니스 모델(BM)을 발굴하는 등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SK텔레콤은 인공지능 영역에서 음악과 커머스 등 생태계를 확대해 사용자 기반을 넓히고, 성능을 고도화 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사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 서비스 출시에 나설 계획이다.

유영상 SK텔레콤 코퍼레이트 센터장은 "지난해 어려운 이동통신사업 환경에서도 대한민국 대표 New ICT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기치 아래 신성장사업 영역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 역시 경영 환경이 불확실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쟁의 판을 바꾸는 과감한 접근으로 New ICT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KB회장, 사외이사 추천위서 빠진다

CEO 이해상충문제 해결

앞으로 KB금융지주의 대표이사 회장은 사외이사와 회장 선임 과정에서 빠지게 된다.

KB금융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는 5일 회의를 열고 인사전문위원 평가 결과를 집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외이사 최종 후보자군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 시작 전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사외이사 후보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날부터 개최되는 사추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퇴장했다.

이에 따라 KB금융 이사회는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이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 상시위원회와 확대위원회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는 지배구조위원회(이하 회추위)와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대추위)로 분리하고 현직 회장은 회추위에서 빠지게 된다.

KB금융 관계자는 "그동안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회장이 포함된 상시위원회가 회장 후보자군 관리 기능까지 하면서 제기됐던 이해상충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내용〉

현행	개정(안)
대표이사 회장, 4인 이내의 사외이사 (유석렬(위원장), 최영휘, 이병남, 윤종규)	4인 이내의 사외이사 (유석렬(위원장), 최영휘, 이병남)

/자료=KB금융지주

회추위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 후보자군 선정 및 관리부터 최종 후보 추천까지 회장 선임 절차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된다.

대추위는 기존 상시위원회와 동일하게 대표이사 회장, 비상임이사,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한다. 관련 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위원회는 아니지만 견제와 균형에 따른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 운영한다.

KB금융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사회와 위원회 등 규정 정비(안)을 오는 8일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결의할 예정이다.

대표이사 회장을 위원에서 제외하는 사추위 규정 개정은 8일 즉시 시행해 윤 회장은 이번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앞으로 남은 사외이사 최종 후보자 선정, 자격검증 및 추천 절차에서 빠지게 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직장인, 설날 평균 44만원 지출... '부담'

직장인들은 올해 설 명절에 1인당 평균 44만원을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인이 직장인 7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설 지출 비용으로 '20~30만원 미만'을 지출하겠다는 답변이 19.5%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0만원 미만'(16%), '40~50만원 미만'(14.3%), '50~60만원 미만'(12.7%), '30~40만원 미만'(12.5%), '10만원 미만'(7.3%), '90~100만원 미만'(6.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인당 평균 지출액은 44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출금액은 결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기혼자는 평균 62만원으로 미혼자(35만원)보다 1.8배 가량 더 많았다.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으로는 '부모님 용돈 및 선물'(66.9%)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음식마련 등 식비'(8.3%), '여가, 문화생활비'(7.1%), '세뱃돈'(5.5%), '친척 선물'(3.4%), '교통비'(3.4%), '여행비'



(3.2%) 등의 순이었다.

세뱃돈을 주는 직장인은 71.2%에 달했다. 세뱃돈을 주는 직장인은 평균 19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1인당 세뱃돈 액수는 5만원 이었고, '세뱃돈을 주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7.9%였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설 연휴 지출에 대해 '부담스럽다'(76.5%)고 답했다. /한용수 기자 hys@

## 중동에서 미국으로 눈 돌리는 정유업계

두바이유 가격 올라 부담 증가  
중동에 맞춘 설비교체로 부담

미국산 원유가 국내 정유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에너지는 올해 1분기 중으로 300만 배럴의 미국산 원유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내 정유업계에서 가장 많은 552만 배럴의 미국산 원유를 들여온데 이어 올해 수입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GS칼텍스도 올해 275만 배럴의 미국산 원유 도입을 결정한데 이어 추가 수입을 검토 중이다. GS칼텍스는 2016년 국내 정유사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산 원유를 수입했고 지난해에도 481만 배럴을 도입했다. 지난해 미국산 원유 206만 배럴을 들여온 현대오일뱅크도 추가 수입을 위해 시장을 살펴보는 상황이다.

정유업계가 미국산 원유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년 전 50달러대에 머물던 국제유가는 최근 상승을 거듭해 배럴당 60달러 중반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도입되는 원유의 대부분은 중동산인데, 중동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65.74달러다. 이에 더해 중동 산유국들은 아시아 지역에 원유를 판매할 때 '아시아 프리미엄'을 붙여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한다.

국내 정유업계도 다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지만 마땅한 성과를 내진 못했다. 세계 각지에 다양한 유종이 있지만, 그 성분과 한국까지 들여오는 시간과 비용을 계산할 때 중동산 원유가 가장 적합했기 때문. 때문에 국내 정유사들의 두바이유 사용 비중은 에스오일 100%, SK이노베이션·현대오일뱅크 80%, GS칼텍스 70% 수준이다.

유종에 따라 특성이 다르기에 설비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도 국내 정유사들이 다양한 원유를 쓰지 못하게 만들



국내 정유업계가 미국산 원유 도입량을 늘리고 있다. 사진은 바레인에서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 시추기. /뉴스시스

었던 요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공정이라도 유종에 따라 나오는 제품의 양과 찌꺼기(파울링)가 달라진다"며 "유종에 따라 배관 사이즈와 압력을 다르게 구성해야 하기에 유종을 바꾸면 설비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가 최근 미국산 원유 수입을 늘리는 것은 두바이유 가격이 지속 상승한 탓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도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통상 두바이유는 미국산 원유(WTI)에 비해 배럴당 2~3달러 저렴했지만 현재는 1달러 가까이 비싼 상황이다.

더군다나 과거 미국산 원유는 미국 정부의 원유 수출 금지조치에 따라 수입이 불가능했지만 지난 2015년 금수조치가 해제되면서 수입이 가능해졌다. 남미를 들고 태평양을 건너는 등 중동에 비해 운송비용이 늘어나지만 두바이유보다 고부가 제품 비중이 높기에 극복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두바이유에 대한 지나친 편중이 가격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린다는 문제 의식도 반영됐다.

업계 관계자는 "중동 원유 의존도가 80% 가까운 상황에서는 중동에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여도 반발

할 수 없다"며 "유종을 다변화하면 가격 인상을 억제할 수 있고 한 유종 가격이 오르더라도 저렴한 유종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자회사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은 24시간 글로벌 원유 시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외 지사를 구축한 상태다. SK에너지는 300여종의 유종 데이터를 통해 최적의 원료를 찾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유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경제성이 확보된다면 지속적으로 미국산 원유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GS칼텍스 관계자 역시 "경제성이 있다면 미국산 원유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에스오일은 두바이유 의존도 100%를 유지할 전망이다. 모회사가 사우디 국영석유기업 아람코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에는 아람코와 20년 원유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에스오일 관계자는 "대규모 장기 계약 체결해 다른 회사에 비해 높은 할인율이 적용됐다"며 "도입 가격에서 다른 기업과 별다른 차이 없으면서도 안정적인 원유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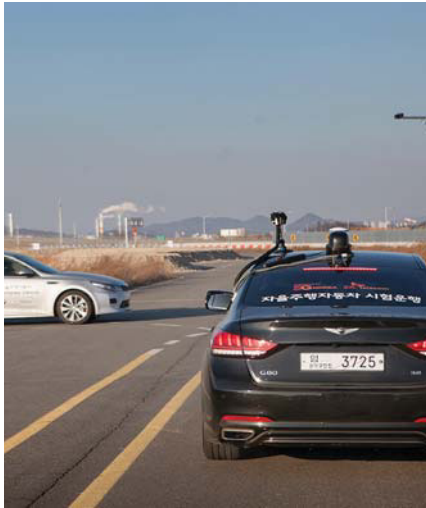


# SKT '자율주행차', 무단횡단 어린이·교통사고도 피한다

(5G)

표지판 cm단위 표현 HD맵 구현  
교통인프라·관제센터 5G 연동  
양자 보안모듈로 해킹 원천차단

# 5일 36만㎡(11만평) 규모의 K-시티. 방송인 김진표 씨와 SK텔레콤과 서울대 연구원이 각각 나란히 두 자율주행차에 탑승했다. 시동이 걸리고 출발하자 나란히 운행을 시작한 두 차량은 스쿨존에 어린이 모형이 갑자기 차도에 등장하자 자동으로 속력을 줄였다. 어린이 모형이 사라지자 운행을 재개했다. 고속주행 구간에서 시속 60km로 속력을 높이던 두 차량은 출구 구간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자 자율주행차끼리 사고 정보 수신을 받고 주행 차선을 바꿔 사고 지점을 통과했다. 자율주행차에 탑승해 있던 김진표 씨는 "일반적으로 장애물이 있어 운전자가 당황하는 상황에서 내비게이션 검색을 직접 해야 해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데, 5G 자율주행차는 전방주시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운전해 안전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교차로에서 만난 자율주행차 두 대가 5G 신호로 대화하며 통행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화성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K-시티에서 자율주행차가 운행하는 모습을 5G 통신망으로 관제센터에 생중계했다.

이날 시연에는 SK텔레콤과 공단이 개발하고 있는 5G자율주행차 2대가 등장했다.

이 차량들은 ▲5G 차량통신 기술(V2X·차량대 사물간 통신) ▲3D HD맵 ▲딥러닝 기반 주행 판단 기술을 활용해서 통신하고, 신호등·관제센터와 교통상황을 주고받으며, K-City의 스쿨존·교차로·고속도로 상황 등으로 구성된 자율주행 트랙 약 2km 구간을 안전하게 달렸다.

복수의 5G자율주행차가 서로의 경로·안전을 살피며 협력 운행에 성공한 것은



방송인 김진표 씨가 차량 내부에서 양손을 놓고 자율주행차를 시승하고 있다.

/SK텔레콤

이번이 처음이다.

시연을 선보인 K-시티는 지난해 12월 SK텔레콤과 공단이 삼성전자와 협력해 전 구간에 28기가헤르츠(㎐) 초고주파대역 5G망을 구축하고 CCTV·신호등 등 교통 인프라와 자율주행차 관제센터를 5G로 연동했다.

같은 날 공개된 HD맵은 K-시티 주행 도로의 정확한 차선 정보와 주변 교통표지판·신호등 등의 정보를 cm 단위로 정밀하게 표현했다. 자율주행차가 이동하는 동안 ▲주변 차량의 실시간 위치 ▲신호등 신호 및 교통 정보 ▲긴급공사·다중 추돌 사고 등 각종 주행 정보가 실시간으로 HD맵에 반영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카메라와 센서 성능이 저하되는 악천후 야간 등 특수 환경에

서도 5G V2X와 3D HD맵이 자율주행차의 사고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는 HD맵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BM)을 구축할 예정이다. 박진호 SK텔레콤 ICT 기술원장은 "HD맵은 자율주행뿐 아니라 맵 플랫폼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리얼 월드(실제 세계)와 사이버 월드를 연결하는 게이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양자 기술 기반 보안 모듈을 자율주행 차량에 조만간 탑재할 계획이다. 양자 보안 모듈은 차량·관제센터·IoT간 통신을 해킹하려는 외부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회사는 이와 함께 5G자율주행 세단 외 5G자율주행 전기버스, 5G HD맵 제작차량 등 다양한 자율주행용 차량을 선보였다.

'5G자율주행 전기버스'는 100% 전기로 구동되는 친환경 11인승 버스이다. 1회 배터리 충전으로 최장 150km, 최고 시속 60km로 주행할 수 있다. 이 버스는 5G 단말기, '셔틀버스 특화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다.

5G HD맵 제작차량은 지붕에 설치된 라이다 센서와 특수 카메라를 이용해 초정밀 지도를 그린다. 이 차량은 지나간 길의 지형 지물 데이터를 서버로 실시간 전송하며 HD맵을 생성하고 업데이트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 SK텔레콤, 공단은 K-시티의 5G통신망, 관제센터, 기술 등을 다양한 기업, 연구기관에게 개방키로 했다. 이날 유엔젤, 세스트(CEST), 성우 모바일 등 중소기업들은 SK텔레콤, 공단과 함께 협업한 자율주행 결과물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K-City는 다양한 실제 시험환경에 5G 통신시설까지 구축돼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라며 "자율주행차가 최첨단 5G 통신기술과 결합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성원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이동통신망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V2X·3D HD맵 등 5G의 강점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며 "안벽한 5G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없는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해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한번 충전에 200km 달리는 '순수전기차'

BMW '뉴 i3 94Ah' 사전계약  
오는 3월 6가지 색상 정식 출시

BMW 그룹 코리아가 미래 이동성을 실현하는 혁신적인 순수전기차 '뉴 i3 94Ah'의 사전 계약에 들어간다.

지난 2013년 첫 선을 보인 이후 전세계 프리미엄 전기자동차 시장의 베스트셀링 모델로 자리매김한 BMW i3의 첫 부분변경 모델인 뉴 i3 94Ah는 전면 전폭을 강조한 새로운 디자인의 범퍼를 갖췄고 풀 LED 헤드라이트를 포함한 모든 조명 기능에 LED 라이트를 적용했다. 방향 지시등 디자인은 원형에서 가로 일자형 형태로 바뀌어 더욱 날렵한 인상을 준다.

보닛에서 출발해 지붕을 지나 후면까지 이어지는 i3의 대표적 특징인 '블랙 벨트'는 A필러와 동일한 블랙 컬러와 크롬 루프라인(지붕 윤곽선)으로 마감했다. 후면은 U자형 LED 리어램프를 넣고 중앙에 크롬 선을 추가해 고급



BMW 뉴 i3 94Ah 전면.

스러움을 강조했다.

뉴 i3 94Ah는 33kWh, 94Ah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완전 충전시 한번에 최대 20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eDrive 모터는 최고출력 170마력, 최대토크 25.5kg·m의 힘을 내며 전기차 유일의 후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됐다.

색상은 '임페리얼 블루'와 '멜버른 레드' 등 두 종류가 추가돼 총 6가지로

구성된다. 오는 3월 정식 출시를 앞둔 뉴 i3 94Ah의 트림별 가격은 LUX 모델이 6000만원, SOL+ 모델은 6560만원이다.

모든 모델에는 8년 또는 주행거리 10만km까지 배터리 품질이 보증된다. 올해 뉴 i3 94Ah의 국고 보조금은 1091만원, 주요 지자체별 보조금은 최대 110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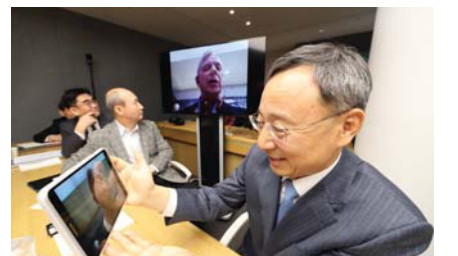
## KT, 美 스포츠이벤트서 5G 서비스 시연

KT는 버라이즌, 삼성전자와 함께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US뱅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미국 최대 스포츠 이벤트에서 5G 연결에 성공하고, 실시간 5G 서비스를 시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연은 한국의 5G망(무선)과 미국의 5G망(무선)을 국제망(유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삼성전자의 5G 통신장비와 시범 단말을 사용했다. 로웰 맥아담 대표를 비롯한 버라이즌 관계자들은 미국에서 KT의 '윌니부' 앱을 체험했으며,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KT 관계자들은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해 버라이즌의 5G 가상 경기장을 체험했다.

이와 함께 KT 황창규 회장과 버라이즌 로웰 맥아담 대표 사이의 5G 국제 영상통화가 이뤄졌다. 5G 영상통화에서 황창규 회장은 양사의 협력을 통해 5G 기술이 한층 발전한 것을 축하하고, 5G 글로벌 생태계를 조기에 활성화시킬 것을 제안했다.

한국-미국 사이에 이뤄진 5G 시연 성공은 KT, 버라이즌, 삼성전자 3사가 지속적으로 협업한 결과물이다. 3사는 세계



5일 KT 광화문 사옥에서 KT 황창규 회장이 버라이즌의 로웰 맥아담 대표와 5G 국제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KT

최초 5G 규격 제정(평창 5G), 5G 단말 및 시스템 기술개발, 5G 시범망 구축 및 노후 공유 등 5G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3사의 노력은 3GPP NSA(LTE-5G 호환) 국제표준이 조기에 확정되도록 기여했으며, 향후 5G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앞으로 3사는 5G 상용화를 위한 최적의 기술개발과 함께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용 기술개발, 5G 에지 컴퓨팅 서비스 개발 등에서 협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예정된 5G 국제 표준화도 협력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 썰리침대 세인트존스 호텔 전 객실 침대 공급

썰리침대가 세인트존스 호텔의 전 객실에 침대를 공급한다.

강릉시 강문해변에 오픈한 세인트존스 호텔은 객실 1091실을 보유한 매머드급 호텔이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지난 1월 가오픈한 상태다.

객실의 모든 침대는 호텔 사양에 맞춰 제작되며 안정감을 높인 투 매트리스 방식으로 구성된다. 썰리침대는 이번 제품은 2016년 설립된 여주 공장에서 생산되

며 호주 R&D 센터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친다고 5일 밝혔다.

썰리침대는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을 시작으로 올해에도 국내 호텔 비즈니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부터 르 메르디앙 서울,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셰라톤 그랜드 인천 등 국내 최고급 호텔을 중심으로 침대를 공급하고 있다.

썰리침대 관계자는 "썰리침대만의 독

자적인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을 찾는 모든 분에게 최상의 수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분이 썰리침대와 함께 건강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국내 호텔 비즈니스를 확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썰리침대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베네치안 마카오 리조트와 같은 세계적인 랜드마크 호텔부터 상그릴라 빌링길리 리조트&스파 몰디브, 발리의 불가리 리조트, 후주의 팔라조 베르사체 골드코스트 등 최고급 호텔에 침대를 공급하고 있다. /임현제 기자 ihj@

### 선데이토즈

지난해 영업이익 125억  
전년 동기 비 28.1% ↓

선데이토즈는 지난해 매출 727억원, 영업이익 125억원, 당기순이익 141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각각 6%, 28.1%, 9.4%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는 매출 173억원, 영업이익 5억원, 당기순이익 2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보다 27.3%, 87.8%, 41% 감소한 수치다. 회사 측은 "10월 페이스북 전용 신작, 12월 '스누피 틀린그림찾기', 올해 초 '위 베어 베이스 더 퍼즐'의 출시에 따라 4분기에 일시적 비용이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데이토즈의 매출을 견인한 주력 게임으로는 애니팡 지식재산권(IP)를 활용한 '애니팡3'과 '애니팡2'가 꼽혔다. 이외에도 '스누피 틀린그림찾기'를 비롯해 '위 베어 베이스 더 퍼즐' 등 신규 IP게임의 이용자 확대도 매출에 기여했다. /김나인 기자



# 포털 라이벌 네이버·카카오, 'AI 경쟁'으로 2라운드

국내 대표 IT 기업들인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들이 인공지능(AI)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네이버는 AI 부문에 검색 부문을 통합해 음성 검색 등 신사업을 추진할 '서치엔클로바'란 조직을 만들었다. 카카오는 그 동안 품절됐던 AI 스피커 판매를 재개하면서 국내에 AI 붐 조성에 나서고 있다. <편집자주>

## '검색 + 인공지능' 역량 한 곳에서

### 네이버 '서치엔클로바'

네이버서치·클로바, 통합조직으로 출범  
각각의 핵심 성장동력 묶어 시너지 기대

네이버가 검색 기술을 연구하는 조직인 '네이버서치'와 인공지능(AI) 서비스 '클로바'의 개발·운영을 맡는 조직을 하나로 합친다고 5일 밝혔다.

새 통합 조직 명칭을 '서치엔클로바'다. 네이버 간판 수익원인 검색과 핵심 성장 동력인 AI를 하나로 묶어 시너지를 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서치엔클로바는 네이버 핵심 리더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신중호 라인플러스 대표(라인 최고글로벌 책임자)가 수장을 맡는다. 그간 신 대표가 클로바 사업을 총괄한 만큼 AI 조직이 검색 조직을 흡수하는 모양새다.

네이버 관계자는 "AI로 기술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플랫폼과 함께 검색·추천형 서비스에도 새 시장이 열리고 있다"며 "통합으로 고도화된 A



I 기반 검색 기술을 확보하고 클로바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다양한 새 서비스도 준비할 것"이라며 "일본을 필두로 글로벌 시장에 적극 도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이버는 지난해 사람의 질문을 듣고 답을 찾아주는 AI 기반 음성 검색 서비스를 주력 상품으로 출시한 바 있다.

/오세성 기자 sesung@metroseoul.co.kr

## "택시 불러줘"... 카카오톡 미니 재판매

### 카카오 '카카오미니'

멜론 정기결제 이용하면 최대 58% 할인  
평창올림픽·택시 호출기능 등 업데이트

카카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인공지능(AI) 스피커 '카카오미니'의 판매를 재개한다고 5일 밝혔다.

카카오미니는 음성으로 명령어를 입력하면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품 가격은 11만9000원이지만 멜론 정기 결제 이용자는 4만9000원(희망소비자가격에서 58% 할인)에 카카오톡 미니를 구매할 수 있다. 멜론 신규 가입자나 정기 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멜론 가입자는 카카오톡 미니(4만9000원, 희망소비자가격에서 58% 할인)와 '멜론 스트리밍 클럽' 6개월 할인쿠폰(4만원, 정가 대비 22% 할인) 패키지를 구매할 수 있다. 구매 고객 모두는 카카오톡 미니 전용 카카오프렌즈 피규어 1종(라이언, 어피치 중 선택)을 받는다.

지속적인 업데이트도 예정돼 있다. 카카오는 지

난 1월 30일 카카오톡 미니 기능 업데이트를 통해 ▲배달음식 주문 ▲교통·길 찾기 정보 ▲여행 사전 ▲스포츠 정보(축구) ▲영화/TV 정보 ▲지식·생활 정보 ▲실시간 검색어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했다.

6일에는 평창올림픽 정보가 업데이트된다. "여자 하키 경기 언제야?", "오늘 쇼트트랙 경기 결과 알려줘" 등 관련 명령어를 음성으로 입력하면, 올림픽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한다. 택시 호출 기능도 7일 업데이트된다. 카카오톡 미니 설정 앱 '헤이 카카오'에서 카카오톡 택시 사용 여부를 설정하고 출발지 주소를 등록한 뒤 "강남역으로 가는 택시 불러줘" 등의 명령어로 이용할 수 있다. "택시 오는 데 얼마나 걸려?" 명령어로 택시 도착 소요 시간도 확인할 수 있다.

/오세성 기자



# 미얀마 PHC파일 공장 준공... "시장 확대" LG전자, ISE서 '상업용 올레드' 대거 공개

아주산업 해외 세번째 생산기지  
"연간 20만톤 규모 PHC파일 생산"



아주미얀마 생산공장 전경.

아주그룹 계열인 아주산업이 미얀마에 PHC파일 생산공장을 짓고 동남아시아를 추가 공략한다. 베트남, 캄보디아에 이은 세번째 현지 진출이다.

아주산업은 지난 2일 오후 미얀마에서 공장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PHC파일 생산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PHC 파일이란 전봇대처럼 생긴 것으로 구조물의 대형화, 연약지반에서의 건설공사, 구조물의 안전성 강화 등 지반의 기초구조 보강을 위해 사용한다.

미얀마 락와와 경제특구에 자리한 아주미얀마 공장은 지난해 3월 착공을 시작해 약 11개월 동안 건설에 들어가 한달 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준공을 맞았다.

공장 부지면적은 5만9822㎡, 연간 20만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태국·라오스 등 동남아 주변국가를 아우르는 PHC파일 공급의 전략기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주산업은 아주미얀마 생산공장을 교

두보로 삼아 연간 20만톤 규모의 PHC파일 생산뿐만 아니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생산, 파일시공 분야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출 계획이다.

아주산업 박상일 대표는 "아주미얀마 공장은 2008년 아주베트남 PHC파일공장과 2011년 캄보디아 전신주 생산공장에 이은 아주산업의 3번째 해외진출사례"라며 "지난 50여년간 콘크리트 분야에서 쌓아온 차별화된 생산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건설재 전문기업이 해외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네덜란드서 열리는 'ISE 2018' 참가  
'투명·오픈 프레임 사이니지' 등 전시

LG전자가 6일(현지시간)부터 4일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2018'에서 차세대 사이니지 제품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대표 제품은 첨단 올레드 기술력을 집약한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와 '오픈 프레임 올레드 사이니지'다.

회사측은 "올레드 사이니지는 백라이트가 없어 기존 LCD에 비해 두께가 얇을 뿐만 아니라 곡면 구현이 자유롭고, 어느 각도에서도 생생하고 정확한 색을 구현하기 때문에 사이니지 제작에 최적"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가 이번에 선보인 차세대 '55인치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는 선명한 화질과 투명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디스플레이에서 관련 정보를 보면서 너머의 상품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오픈 프레임 올레드 사이니지'는 올레드만 가능한 옹골하고 볼록한 디자인으로 조형미를 살릴 수 있는 제품이다. CE



LG전자 부스에서 모델이 '차세대 55인치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S 2018에서 관람객들의 극찬을 받았던 '올레드 협곡'도 이 제품으로 구현한 것이다.

그 밖에도 LG전자는 투명 강화유리에 앞뒤로 두 장의 올레드를 붙인 '인글라스 올레드 사이니지', 4mm 이하의 얇은 두께로 벽과의 일체감이 탁월한 '올레드 월페이퍼', 베젤이 3.5mm까지 얇아진 '올레드 비디오월' 등도 전시했다.

LG전자는 이번 ISE 2018에서 각종 매장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 공항, 호텔, 회의실 등 다양한 산업 현장별로 특화된 사이니지 솔루션을 전시한다.

특히 LG전자의 공항 사이니지 솔루션은 빛 반사율을 줄여 시인성을 극대화한 반사 저감 비디오월을 적용, 수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비행안내판 등에 최적화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m@

## 대우위니아

### 현 김치냉장고 반납하면 '30만원' 등 경품

대우위니아는 오는 22일까지 '설맞이 담채 보상판매 대축제'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형 김치냉장고를 반납하고 담채 신제품을 구매하면 최대 30만원의 모바일 상품권 또는 캐시백을 카드사와 연계해 제공한다.



행사 대상 담채 신제품 모델은 3룸, 4룸 스탠드형 제품과 담채 마방, 뚜껑형 제품 등이다. 반납 제품은 담채가 아닌 타사 제품도 가능하다. 모델명 및 연식 제한은 없다. 행사 제품을 구매하면 설치 기사가 직접 방문해 새 제품을 설치하고 기존 제품을 회수한다.

/정은미 기자

### 누적탑승객 5000만명... 韓 인구 돌파 임박

제주항공 취항 11년 8개월 만

제주항공이 지난 2월3일 누적탑승객 5000만명을 돌파했다.

5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이번 누적탑승객 5000만명 돌파는 2006년 6월5일 취항 이후 11년 8개월 만이며, 4000만명 돌파 이후 채 1년이 안 걸렸다. 조만간 우리나라 총인구수(지난해 12월 기준 5177만 8544명) 만큼의 누적탑승객수도 달성할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취항 이후 6년 11개월 후인 2012년 5월 1000만명을 달성했으며 이후 2년 2개월 만인 2014년 7월 2000만명, 1년 6개월 만인 2016년 1월 3000만명, 1년 1개월 만인 2017년 2월 4000만명을 달성하는 등 1000만명 단위 돌파기간을 급속하게 줄이고 있다.

5000만명의 누적탑승객 가운데 국내선 탑승객은 3003만여명으로 60.1%의 비중

을 차지했으며, 국제선 탑승객은 1997만여명 39.9%의 비중으로 집계됐다.

국제선에서는 일본이 16.9%(845만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태국·필리핀·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노선이 11.1%, 중국을 비롯해서 홍콩 마카오 대만 등 중화권이 7.4%의 비중을 차지했다.

제주항공은 이 같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는 연간 순증 기준으로 역대 최대규모인 8대의 항공기를 추가 도입해 연말까지 총 39대의 항공기를 운용할 계획이다.

/양성문 기자 ysw@



# MG손보 매각 수순?... 노조 “증자가 경영정상화 해법”

노조, 경영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당기순익 53억... 만년적자 탈출”

대주단, 매각주관사 선정할 듯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경영난에 시달리던 MG손해보험에 대한 유상증자 안건을 부결시켰다. KDB생명 등 재정건전성 약화에 시달려 온 다른 보험사들이 최근 최대 주주로부터 자금을 받아 영업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한 것과는 다른 행보로 시장에서 이례적인 MG손보 매각설이 다시금 불거졌다.

MG손보 사무금융노조는 5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에서 MG손보의 경영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새마을금고중



박차훈  
17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기 행위”라고 규탄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중간에 사모펀드 운용사 자베트파트너스를 끼고 MG손보를 간접 소유하고 있다. 사실상의 MG손보 최대주주인 것이다. 자베트제3호유한회사와 새마을금

고중앙회는 MG손보의 지분을 각각 93.93%, 6.07% 보유하고 있다. MG손보 노조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펀드 지분의 99.97%인 3531억원과 후순 위채권 300억원까지 서민의 피담 어린 3831억원을 MG손보에 투자하고 있다”며 “때문에 금리인상에 따른 여파로 악화된 RBC비율 개선을 위해 증자만 한다면 충분히 경영정상화를 통해 회사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MG손보는 지난 2013년 출범 첫 해 순손실 393억원을 기록하는 등 줄곧 적자를 기록해 왔다. 4년 내내 순손실을 내며 자본의 상당 부분을 까먹는 등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험금 지급여력을 나타내는 RBC비율은 현재 115.61%로 업계 최하위 수준이다. 금융당국의 RBC비율 권고 기준은 150%로 업계 평균은

257.2%다.

당시 시장에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MG손보 증자 요구 거절에 대해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봤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과거 MG손보의 전신인 그린손해보험을 2013년 1800억원에 인수한 뒤 4년 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23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왔다.

다만 당장 새 보험회계기준(IFRS17)의 도입을 준비하면서 MG손보의 RBC비율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보의 경영정상화를 불투명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G손보 노조는 “MG손보는 그간 손실을 메꾸기 위해 노동자들의 구조조정과 건물 매각 과정 등을 거쳤다”며 “노동자들이 피담 흘려 일해 지난해 당기순익

은 53억원을 달성하는 등 만년 적자에서 탈출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최근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새롭게 당선된 바 즉각적인 증자 단행 만이 MG손보 경영정상화의 유일한 수단임을 알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MG손보 대주단은 회사의 매각 주관사 선정에 한창이다. 최근 MG손보 매각에 다른 제안서를 검토하고 조만간 주관사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단은 증자 등 투자유치는 계속 진행하면서 매각 절차도 함께 밟을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각 대상은 자베트제2호유한회사(93.93%)와 새마을금고중앙회(6.07%)가 소유한 MG손보 지분이다. 매각가는 4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봉준 기자 b35sea@metroseoul.co.kr

## 가상통화 피싱 급증... 피해금 2423억원

금감원, 피해액 전년비 26% 증가  
기존 대표통장 대신 가상통화 악용

가상통화를 악용한 신종 수법이 등장하면서 지난해 보이스포싱 피해규모가 크게 늘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보이스포싱 피해액은 24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가상통화가 피해금 인출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대출빙자형 피해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가상통화를 이용한 보이스포싱 피해규모가 1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당 피해금은 1137만원으로 전체 보이스포싱 건당 피해금 485만원의 두 배가 넘는다.

사기범들은 피해금을 현금화하기 위해 기존 대표통장 대신 가상통화를 악용한

〈2017년 보이스포싱 및 대표통장 현황〉

(단위: 억원, 건, %)

구분		2016년(A)	2017년(B)	증감(율)(B-A)		
보이스 피싱	대출 빙자형	피해액	1,344	1,805	461	(34.4)
		피해건수	37,222	42,248	5,026	(13.5)
	정부기관 사칭형 등	피해액	580	618	38	(6.6)
		피해건수	8,699	7,700	△999	(△11.5)
합계	피해액	1,924	2,423	499	(26.0)	
	피해건수	45,921	49,948	4,027	(8.8)	
대표통장		건수	46,626	45,422	△1,204	(△2.6)

/자료=금융감독원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통화는 금융권의 의심거래 모니터링이나 자동화기기 인출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아 거액의 출금이 가능했고, 자금을 추적하기도 어려웠다.

반면 대표통장 발생 건수는 4만5422건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했다. 은행권의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와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소폭 줄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대표통장이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풍선효과로 새마을금고나 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서는 증가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한화생명, 보험금지급능력 ‘AAA’ 등급

국내 3대 신용평가기관서  
11년 연속 최고등급 유지

한화생명은 국내 3대 신용평가기관인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로부터 보험금지급능력 최고등급인 ‘AAA’를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한화생명은 지난 2008년 2월 한국기업평가와 NICE신용평가로부터 신용평가 AAA를 받은 이후 11년 연속 최고등급을 유지해 오고 있다.

한화생명은 우수한 시장지위 및 안정적인 영업기반, 자산건전성, 자산운용이 익률 및 수익성 지표의 점진적 상승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업 지표에서는 오랜 업력에 기반한 우수한 설계사 인력관리와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판매조직의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 받았다. 13월차 설계사 정착률은 우수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보험계약 유지율도 업계 평균 수준으로 양호하다. 상품 측면에서는 보장성, 저축성, 특별



차남규 한화생명 부회장

계정으로 고르게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보이고 있는 점이 사업다각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 받았다. 특히 보장성보험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점은 보험료 수입의 안정성과 보험상품믹스의 질적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라고 분석됐다.

일반계정 기준으로 보장성 보유계약 비중은 지난해 9월 기준 79.5%로 높은 수준이다.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다양한 대체 투자자산 발굴 등 자산운용 다각화 노력을 통해 업계 평균 이상의 운용자산이익률이 유지되고 있고 회사의 기본적인 수익성 지표 또한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 받았다. 향후 운용자산이익률 상승과 이차 역마진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수익성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봉준 기자

## 8일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혜택 소외 기존대출자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

오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로 낮아진다. 신규 대출부터 낮아진 최고금리가 반영되고, 기존 대출은 만기도래분을 갹신하거나 연장할 때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최고금리 인하혜택에서 소외되는 기존 차주는 대한대출이나 금리인하 요구권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자가 신용등급 상승이나 승진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신용평가회사(CB) 홈페이지에서 4개월에 한 번씩 자신의 신용등급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연체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한 경우에도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 질 수 있다. 기존 대출자라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 중인 저축은행 업계의 자율적 금리부담 완화 방안도 눈여겨 봐야 한다.

이에 따르면 최고금리 24%를 넘는 저축은행 대출을 받은 사람은 기존 대출을 만기 전에 갹을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안상미 기자

## 우리은행, 연 최대 7.2% ‘챔프 복합예금’

수익률 최저 1.2%... 원금 보장

우리은행은 오는 9일까지 주가지수연동예금 ‘우리Champ(챔프)복합예금 18년-2호’를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우리Champ복합예금 18년-2호’는 삼성전자 보통주, 코스피200지수 등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되는 예금이다.

만기 해지 시 원금이 보장되고 최고 연 7.2%의 수익률과 최저 연 1.2%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할 경우는 중도상환 수수료로 인해 원금 손실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1년이며,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삼성전자 상승형, KOSPI200 상승형, KOSPI200 양방향형 구조로 총 3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삼성전자 상승형’은 가입기간 중(기준지수결정일~만기지수결정일) 기준지수 대비 지수가 20%를 초과 상승한 적 없으면 주가지수 상승률의 30%를 연환산하여 최고 연 7.2% 이자율을 지급받는다. /채신화 기자 csh9101@



또 저축기간 장중 20%를 초과하여 상승한 적이 있거나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하락하더라도 연 1.2% 수익률이 보장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원금이 보장되면서도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라 일반 정기예금 대비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또 최저 1.2%의 이자율을 보장하여 상품 안정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KEB하나銀, ‘12.5kg 라지골드바’ 판매

가로 25.4·세로 5.5·높이 4.2cm  
은행권 최초 단독... 영업점서 주문

KEB하나은행은 기존에 판매 중인 골드바상품(1kg·100g·10g)외에 중량 12.5kg의 라지골드바(Large Gold Bar)를 은행권 최초로 단독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라지골드바는 가로 25.4cm, 세로 5.5cm, 높이 4.2cm의 직육면체 모양의 런던금시장연합회(London Bullion Market Association)의 표준화된 규격이 적용되는 상품으로 KEB하나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주문하면 최대 4영업일 이내에 수령할 수 있다.

최근 가상화폐 이슈 등 세계 경제의 예측 불가능성이 증가했고, 대내적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및 보유세 개편까지 예고돼 전통적 안전자산인 골드바에 대한 관심과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조정에 대한 니즈가 어느 때보다 증가한 상황이다. KEB하나은행은 신규 수요에 부응



하기 위해 기존 시중은행에서 판매됐던 최대 중량 1kg 한도 내의 골드바를 넘어 라지골드바 판매를 기획하게 됐다.

KEB하나은행 골드바 담당자는 “실물자산 선호 고객들의 포트폴리오 확장 수요에 맞추어 은행권 최초로 라지골드바 상품을 출시했다”며 “평소 안전자산인 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손님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골드바 구매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추천했다. /김문호 기자 kmh@

KEB하나은행은 신규 수요에 부응



중권 다이제스트



NH투자증권  
연금저축고객 ETF 출시

NH투자증권은 2월 1일부터 연금저축 계좌 가입고객이 상장지수펀드(ETF)를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인버스, 레버리지 및 해외시장 ETF를 제외한 국내시장 ETF를 영업점,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홈페이지 및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매매 가능하다.

ETF를 투자할 때의 장점은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과 낮은 투자비용을 꼽을 수 있다. 일반펀드는 환매기간이 보통 2~3거래일, 해외펀드는 평균 8거래일 이상 소요된다. 반면 ETF는 실시간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처 가능하다. /김문호 기자



신한금융투자  
해외거래하고 여행 가즈아!

신한금융투자는 해외 거래 고객 대상으로 '해외여행 가즈아!' 이벤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에서 환전, 해외주식거래, 해외주식담보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생애 최초로 외화를 100만원 이상 매수하는 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을 제공한다. 환전, 해외주식, 해외주식담보대출 고객 중 매주 5명을 추첨해 20만원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KB증권  
신규고객 할인수수료 혜택

KB증권은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해외선물 글로벌 챌린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각 국가별 주요 해외선물 물상품 안내 및 해외선물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오는 3월 31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 중 해외선물·옵션 계좌를 개설하고 이벤트를 신청하는 모든 고객들에게는 신청일로부터 3월 말까지 이벤트 상품 거래 시 2.99달러의 할인수수료 혜택을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 “4차산업혁명 ‘준비위’ 통해 선제적 대응”

권용원 금투협회장 취임 간담회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해결해야 글로벌 진출때 플랫폼 수출 고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4차산업혁명 디지털 혁신은 무시하거나 방관할 수 없다(too big to ignore)”며 “금투협이 앞장서서 고민하고, 업계와 4차산업혁명 위원회를 만들어 변화를 선제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후보 시절부터 금융투자협회 기업권과 함께 4차산업혁명 위원회를 발족해 관련 투자를 늘리고,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권 회장은 정부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관련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약속했다.

권 회장은 “정부의 국책연구개발 사업 아래 진행되는 연구개발(R&D) 지원에 금융투자업계가 빠져있다”며 “산업과 기술의 융합시대이니 만큼 지원과 관련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권 회장이 밝힌 4차산업혁명 위원회의 구성안을 들여다보면 업권 간 공동 기술 개발의 역할뿐만 아니라 창의적



권용원 제4대 금투협회장이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인 자본시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와 충돌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기술적 규제 등 선진적인 환경을 제안하는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역할에 대해 그는 “인공지능(AI)의 경우는 워낙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오픈소스 등을 활용해 AI시대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선두에 서기 위

해선 ‘규제 샌드박스’에 금융투자업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금융업은 4차산업혁명에 큰 영향을 받지만 여전히 인프라적인 관점으로만 보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에 왜 금융투자업이 들어가면 안 되는 지 화두를 계속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권 회장은 정부가 요구하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의 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 두 가지가 약속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규제와 세제다.

권 회장은 “자본시장에는 규제와 세제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세제혜택에 관

한 일관된 방향성과,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규제완화, 이 두 가지를 정부에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초대형 투자은행(IB) 제도 안착,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등이 힘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내 증권사들이 전 세계로 진출함에 있어 현지 법인 설립 외 플랫폼 수출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주식거래 솔루션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이 구현된 국내 플랫폼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며 “해외 플랫폼 수출을 통해 장기적으로 선진국 금융시스템에 국내 플랫폼이 정착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 내부 운영에 대해서는 ‘맥시멈 디테일(maximum detail)’을 약속했다.

권 회장은 “금융투자협회는 업권과 정부기관 그 중간에 위치해 있다”며 “업권의 건의를 잘 조율해 정부기관에 설득력 있는 안을 전달해야 하는 만큼 맥시멈 디테일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간자의 위치로서 누군가에게 밀려서 일을 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일하는 협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설정액 ‘14조원’ 돌파... 시중자금 ‘블랙홀’ 헤지펀드

한국형 ‘부익부빈익빈’ 현상 나타나  
투자 수요 늘어 운용사도 우후죽순

헤지펀드는 14조원 규모의 시중자금을 빨아들이며 자금 블랙홀이 됐다. 초저금리 시대에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기관과 초고액자산가의 자금이 몰리고 있어서다. 그러나 트레레코드(운용성과)가 쌓이면서 한국형 헤지펀드의 부익부빈익빈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5일 NH투자증권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한국형 헤지펀드 설정액은 13조 948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말보다 1조5000억원이 늘었다.

개별 헤지펀드 설정액은 NH엠플스 투와 ‘삼성 다빈치 1호’의 설정액이 각각 4524억원, 4046억원으로 덩치가 가

장 크다.

전문가들은 국내 주식형펀드 인기가 시들해진 가운데 헤지펀드가 대안 투자처를 찾는 고액 자산가들의 선택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는 올해 1417억원이 이탈했다. 최근 3개월 사이에는 4조4474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헤지펀드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신생 운용사도 우후죽순 등장해 헤지펀드 운용사 수는 115개까지 늘어났다.

교보증권의 독보적인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교보증권 헤지펀드 96개의 순자산 총액(설정액+운용이익)은 지난달 말 기준 1조6773억원으로 업계 1위다.

여기에 2015년 10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도입되면서 진입 문턱이 낮아진 것도 주요했다. 헤지펀드 운용 요건이

자기자본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됐고, 투자 최소금액도 1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 결과 시장에 새로 뛰어든 헤지펀드 운용사가 크게 늘고 자산가들의 투자도 증가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트레레코드가 쌓이는 만큼 한국형 헤지펀드의 부익부빈익빈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한국형 헤지펀드가 퀀텀점프를 하려면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 규제 일변도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미적미적한 태도도 헤지펀드에는 아픈 부분이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말부터 참여를 했지만 아직 업계가 만족할 만한 투자는 없는 게 현실이다. 국민연금 투자 방식을 참고하는 다른 연기금과 공제회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김문호 기자 kmh@

<상위 20개 운용사별 헤지펀드 현황>

No	운용사	펀드수	설정액(억원)
1	교보증권	96	16,773
2	타임폴리오	10	11,439
3	미래에셋	13	5,385
4	삼성헤지	13	5,427
5	토러스증권	4	3,108
6	DS	1	4,524
7	NH투자증권	23	5,118
8	삼성자산	26	4,822
9	안다자산	15	3,761
10	피데스	9	3,876
11	라이자산	1	4,046
12	빌리언폴드	1	53
13	흥국자산	22	3,289
14	머스트	8	2,415
15	푸른파트너스	4	2,899
16	멀티에셋	3	3,082
17	브레인	15	2,556
18	플랫폼파트너스	31	2,075
19	라이노스	10	2,287
20	트리니티	22	1,955

## ‘서울-세종 고속도로’ 분양 후끈

이달 분양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아파트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잇는 제2경부축 거점도시의 물량이다.

포스코건설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일대에 선보이는 ‘분당 더샵 파크리버’는 59~84㎡ 아파트 506가구와 84㎡ 오피스텔 165실 규모다. 부원건설도 세종 2-4생활권 HC1블록 일대에 ‘트리셰이드 리젠시’ 84~95㎡, 528가구를 선보인다.

이아파트는 동계올림픽으로 일시 개점휴업 상태인 분양시장에서 주목받는 아파트로 제2경부축 거점도시에 들어서는 것이 특징이다.

제2경부축 거점도시가 다시금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총 구간 131.6km)가 지나는 경기 구리, 하남, 성남, 용인, 평택, 안성, 세종 등이다. 특

은 서울~부산을 잇는 기존 경부축에 비해 아직은 분양가가 낮은 점이다. 이달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주목받는 물량이어서 가격 비교 우위는 낮으나 여타 물량의 경우 개통 시점에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도록 하고 전 구간 개통 완료 시기를 기존 2026년 말에서 2024년 6월로 앞당겼다. 착공시기별로 ▲2016년 성남~구리(21.9km) ▲2017년 안성~성남(50.2km) ▲2019년 세종~안성(59.5km) 순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완공 시점이 빨라진 만큼 통행시간(129분→70분대)이 줄어들어 따라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주요 거점도시 부동산은 여전히 활황이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계획 발표 시점인 2015년 11월 대비 현재까지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경기 구리시 3.85% ▲성남시 7.35%로 같은 기간 ▲경기 전체 3.08% ▲전국 2.06%보다 높다.

거점도시의 분양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경기도 평택시 모산영신도시개발사업 A3블록에서 ‘SRT 센트럴지제’ 59~

84㎡, 1603가구가 예정돼 있다. 연내 착공 계획인 GTX-A(킨텍스~동탄)노선이 SRT 노선과 연결된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컨소시엄 역시 3월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B6-C2-C3블록에 ‘하남 포웰시티’ 73~152㎡, 2603가구를 분양한다. 단지 주변으로 천마산, 금암산 등 녹지가 인접해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 CJ오쇼핑, 태국 진출 5년만에 '흑자'... 취급고 650억 달성

## 태국 홈쇼핑업계 첫 턴어라운드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공략

CJ오쇼핑의 태국 합작법인 GCJ가 지난해 첫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2012년 6월 개국 이후 5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CJ오쇼핑은 GCJ가 지난해 전년 대비 14% 성장한 650억원의 취급고를 달성하고 영업이익 2억 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태국 홈쇼핑업계 최초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태국에서는 GCJ 론칭 다음 해인 2013년을 제외하고는 2014년 쿠데타, 2015년 방콕 폭탄테러, 2016년 푸미폰 전 국왕 서거 등 4년 간 굵직한 정치사회 이슈가 끊이지 않아왔다. 2016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했던 GCJ도 불가피하게 손익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CJ오쇼핑 측은 지난해 1개월 간 방송



GCJ 패션잡화 방송장면 캡처.

이 중단되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4%의 외형 성장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이번 실적을 고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태국에서 운영 중인 연 매출

300억 원 이상의 TV홈쇼핑 업체 중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GCJ가 유일하다.

GCJ는 론칭 초기부터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펼쳤다. 300명이 넘는 GCJ 직원

중 한국인은 성낙제 법인장을 포함해 4명 뿐이다.

또 방송 초기부터 지금까지 매년 10여 명의 방송인력을 한국으로 파견해 각 직군 별 OJT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짧은 기간 내에 방송 노하우를 전수받도록 했다.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도 이어왔다.

특히 비대면 거래의 특성 상 교환·반품이 많아 주방용품 등에 비해 고도의 관리가 필요한 패션, 화장품 등 소위 '소프트라인(Soft line)' 카테고리를 강화해 주요 고객층인 3040세대 여성층을 공략한 것이 주효했다.

태국의 대형 패션기업 'ICC'와 파트너십을 맺고 와코루(Wacoal), 애로우(Arrow), 세인트앤드류스(ST. Andrews) 등 차별화 된 브랜드 제품을 선보인 것도 실적 개선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다른 경쟁사에서는 시도하고 있지 못한 생방송 운영도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에는 현지 업계 최초로 오전 8시와 저녁 7시 등 프라임 타임 시간대에 매일 3개의 생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해 효율을 높였다. 해당 프로그램의 취급고는 녹화방송에 비해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총성고객 확보에도 공을 들였다. 업계 최초의 고객 등급제를 실시해 VIP 고객들의 충성도를 높여 해당 고객들의 구매 횟수를 전년 대비 20% 가까이 끌어올렸다.

GCJ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성낙제 법인장은 "올해는 상품 차별화와 신규 사업 모델 구축,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흑자 구조를 더욱 견조히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태국 홈쇼핑 시장에서의 1위 자리를 굳히고 시장점유율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 오리온 '초코파이 하우스' 신세계百貨 오픈

### 강남점 식품관에서 2호점 열어 부드러운 '스노우 마시멜로' 특징

오리온은 '초코파이 하우스' 2호점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지하1층 식품관에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초코파이 하우스는 오리온의 대표 브랜드인 '초코파이情'을 새롭게 재해석한 '디저트 초코파이'를 판매하는 디저트 전문매장으로 지난해 12월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첫 선을 보인 바 있다.

오리온 측은 신세계백화점이 먼저 강남점에 초코파이 하우스 오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리온은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디저트 초코파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저트 메카로 손꼽히는 강남에 매장을 결정했다. 디저트 초코파이의 오리온의 디저트카페 '랩오(Lab O)'에서 파티셰들의 연구·개발 끝에 완성한 레시피와 엄선된 프리미엄 재료를 사용해 만든다.



100% 카카오버터로 만든 리얼초콜릿 코팅에, 천연 바닐라린과 프랑스산 그랑마니에를 더해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일명 '스노우 마시멜로'가 특징으로 '오리지널', '카라멜솔트', '카카오', '레드벨벳' 등 4종류가 있다. 제품을 보호하는 동시에 제품 개봉 후 한 손에 들고 먹기 편리하도록 디저트 초코파이 전용 '트레이'도 개발해 소비자의 편의

성을 높였다. 오리온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나라 디저트 메카인 강남에 매장을 오픈하게 됐다"며 "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서울역, 주요 면세점 등을 중심으로 초코파이 하우스를 공격적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코카콜라, 평창동계올림픽 스페셜 패키지

### 동계스포츠 즐기는 폴라베어 담아

코카콜라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기념해 '폴라베어 스페셜 패키지' (사진)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폴라베어 스페셜 패키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하며 피겨스케이팅, 스노보드 등 동계스포츠를 즐기는 폴라베어



어의 모습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또한 디자인 곳곳에 코카콜라 고유의 컨투어 보틀 실루엣이 숨겨져 있다.

박인용 기자

## '가성비 甲' 이마트 노브랜드, 대형가전에 손 뻗었다

### 43인치 풀HD TV 29만9000원 판매

이마트 노브랜드가 본격 대형 가전 시대를 연다.

이마트는 오는 8일부터 전점에서 노브랜드 43인치(대각선 길이 107cm) 풀HD(1920×1080) TV를 29만9000원에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해 9월 19만9000원에 32인치 HD(1366×768) 제품을 처음 출시했다. 1차 발주 물량 5000대가 3주 만에 완판된 데 이어 11월 2차 물량이 입고되어 현재까지 7000여대가 팔려 나갔다.

이번 노브랜드 TV는 이마트가 직접 기획하고 중국 주문자상표 부착 생산(OEM) 전문 가전기업이 생산했다. 이마트는 좋은 TV를 가장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제조사를 찾아 8000대 대량으로 주문해 가격을 낮췄다.

제품의 대표적인 스펙은 178° 광시야각 디스플레이다. 어느 위치에서도 동일한 색감과 선명한 화질로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등급은 1등급을 자랑한다. 또 USB 메모리를 이용해 사진, 동영상, 음



이마트가 실속형 가전 시장 성장세에 힘입어 두 번째 노브랜드 TV(43인치 풀HD)를 출시한다. /이마트

악을 즐길 수 있고 HDMI 포트도 3개로 주변기와 편리한 연결이 가능하다.

사후 서비스는 TGS의 100여개 전문서비스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무상서비스 기간은 1년이다. 이후 7년간 유상서비스로 제공한다.

한편 이마트가 4개월 만에 노브랜드 TV 2타를 선보인 이유는 많은 소비자들이 '가성비'를 가전 선택 기준으로 삼으면서 실속형 서브 가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 전기포트와 1000원짜리 에어컨으로 시작했던 노브랜드 가전은 2018년 2월 현재 32인치 TV, 에어프라이어, 드라이어 등 총 30종으로 상품이 확대됐다. 매출 역시 2016년 대비 2017년 연 신장율이 26%, 2018년 1월의 전년 동기 대비 월 신장율이 53%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이마트는 디지털·생활·주방가전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가전제품군 선보여 실속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 롯데백화점, 평창 특선 선물세트 8종 판매

롯데백화점, 평창 특선 선물세트 8종 판매

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직원들이 강원도의 특산물로 구성된 '평창 특선 선물세트'를 소개하고 있다. '평창 특선 선물세트'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식 스폰서 상품으로 롯데백화점이 강원도 대표 생산자인 평창, 영월, 정선 축협, 강원인삼협회, 한반도농협 등과 기획했다.

롯데쇼핑

## 롯데칠성음료 '잔치집 식혜' 패키지 리뉴얼

### 세련된 이미지로 소비층 확대 나서

롯데칠성음료가 식혜 음료 브랜드 '잔치집 식혜' 패키지를 리뉴얼(사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은 지난 1995년 1월에 선보인 잔치집 식혜의 고유한 맛과 향은 그대로 유지하고 패키지 디자인에 변화를 준 것으로, 한층 세련된 이미지를 앞세워 젊은층까지 소비층을 확대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리뉴얼 잔치집식혜는 어머니의 정성 가득한 손맛이 느껴지는 식혜 이미지를 정면에 배치하고 달콤한 식혜의 맛이 돋보이도록 노란 바탕색을 적용했다. 100% 국내산 쌀을 사용한 것을 강조하기 위



해 '우리쌀로 정성껏만든 밥알동동 잔치집 식혜' 문구를 넣고 비 이미지를 본 판 세련된 서체로 제품명을 표기해 식

혜 음료의 주 타깃인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젊은층에도 어필하고자 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잔치집 식혜는 1995년 출시되어 소비자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 제품으로 이번 패키지 리뉴얼을 통해 젊은 소비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선택 아닌 필수… 리베이트 뿌리 뽑는다”

# 제약사, CP등급 잇따라 획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제약업계 올바른 윤리경영 집중 CP 관련 교육·조직체계 강화 등 'AA' 획득 위한 각종 활동 이어져

국내 제약업계가 윤리경영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을 이룰 위해 공정거래 위원회가 주관하는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 획득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1년 이상 CP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진의 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운영실적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제약사들이 CP 등급 획득에 나서서 이유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함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글로벌스탠다드를 만들기 위해서 윤리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마다 CP 계획을 직원들에게 스며들도록 각종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영업사원을 중심으로 CP관련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JW중외제약, 동화약품이 지난해 CP 등급평가에서 최고 수준인 'AA'를 획득했다. 올해 초 한미약품, CJ헬스케어, 일동제약 등도 'AA'를 받았다.

JW중외제약은 2014년 CP팀을 신설하고 준법경영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지난해에는 대표이사들 공동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하고 20여명의 CP책임자를 임명하는 등 '공정경쟁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조직체계를 강화한 바 있다. 또 6월 2일을 'JW 윤리의 날'로 지정해 임직원들의 자율준수 실천의지에 대한 자세를 재점검하고 CP 규정을 사규와 승진시험 기본과목에 반영하는 등 준법준수와 윤리익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한미약품 본사. /한미약품

하고 있다. JW중외제약은 최고수준의 윤리경영을 추구하기 위해 반부패 및 준법경영 관련 국제인증 표준규격인 'ISO 37001' 인증도 추진하고 있다.

동화약품은 2015년 공정거래 전담부서인 '감사/CP팀'을 CEO직속으로 신설하여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했다. 제약협회 산하 자율준수 분과위원회 및 CP 전문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제약산업 전반의 CP 구축 활동에도 기여하고 있다. 전 임직원 대상으로는 CP 홍보 및 행동강령 전파, 정기적인 CEO 메시지, 정기o수시 교육, CP위원회 운영, 내부감사, CP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등을 통해 올바른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인 'ISO 37001' 인증도 향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미약품은 2015년부터 2회 연속으로 AA 등급 획득했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CP 제도를 시스템화했으며 2013년

CP등급 BBB 획득 이후 2014년 A 등급, 2015년 업계 최고 수준인 AA 등급을 받았다.

한미약품은 2015년 컴플라이언스팀을 확대 개편해 독자 업무화하고, 실시간 CP 모니터링 및 정기적 현장점검을 병행해오고 있다. CP TEST 및 우수자 추천을 통해 우수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제재해왔다. 사내 자율준수의 날(4월 1일)을 제정하고, 전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 및 윤리경영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올해 11월에는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 인증을 획득하며 윤리·준법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일동제약은 지난 2007년 CP를 도입하고,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해왔다. 2007년 당시 공정경쟁 실천 선언을 비롯해 자율준수편람 제정, 관련 교육시스템 구축 등 CP 운영을 본격화했다. 2014년에 준법경영 선포식을 개최했으며, 2016년부터는 '자율준수의 날'을 지정해 연례화했다. CEO를 포함한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기념행사 및 서약선서를 통해 준법경영에 대한 실효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임원실 직속으로 CP관리실을 설치해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약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전문성을 높였다. 일동제약도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 인증도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제약업계에서 CP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으며 CP는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돕는 장치"라며 "CP 이외에도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 인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백운규 산업부장관

# “2년 내 중견기업 5500개”

중견기업 비전 2280 이행계획 일자리 13만개 신규 창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후 충북 청주 오창산업단지에서 열린 '중견기업 정책혁신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남뉴스

오는 2022년에 국내 중견기업이 5500개로 늘어나고 13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매출액 1조원 이상의 중견기업 80개와 지역거점 중견기업 50개를 육성해 수출 중견기업 비중을 전체의 5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국내 혁신형 중견기업 중 하나인 네패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견기업 비전 2280'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중견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중견기업 수 및 고용 비중이 낮으며 내수·소규모 중심, 대기업 의존적 성장 등으로 자체혁신 역량이 부족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이후 산업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벤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관계부처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유관기관 및 학계, 업계로 구성된 '중견기업 정책혁신 범부처 TF'를 운영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중견기업의 수를 2022년까지 5500개로 늘려 저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같은 기간 중견기업이 창출하는 신규 일자리 수는 13만개가 새롭게 창출된다.

특히 정부는 해외진출이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 500개사를 선정해 '수

출 도약형 중견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장 개척, 판로 다각화, 정책 금융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매출액이 1조원을 넘으면서 연구개발(R&D)과 수출 비중이 높은 혁신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월드챔프 1조클럽'이라는 이름으로 80개 기업이 육성된다.

정부는 또 향후 5년간 로봇, 자동차, 바이오 등 업종별 핵심 R&D에 2조원을 투입한다. 올해 30개 등 2022년까지 130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까지 260여개의 기업이 발굴됐다.

백 장관은 "향후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청년이 가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주체로서 혁신적 중견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형 중견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강스템바이오텍-코스온, 합작법인 '라보셀' 설립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사업 강화



강스템바이오텍이 화장품 전문 기업인 코스온과 합작법인 라보셀(Labocel)을 설립하고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5일 밝혔다.

강스템바이오텍과 코스온은 지난 2015년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공동사업화 계약을 맺고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 화장품 '지디일레본(GD11)'을 론칭한 바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지디일레본 품목 중 하나인 어드밴스드 랩 에너지 앰플로 인체 유래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으로는 최초로 흡소핑에 성공적으로 론칭했다. 지디일레본 제품 라인은 제대혈 줄기

세포의 효능을 체험할 수 있는 레이징 파워 라인을 진입상품으로 하여 재생에 니즈가 있는 국내외의 다양한 고객을 커버할 수 있는 라인으로 구축되어 있다.

라보셀은 향후 지디일레본의 흡소핑 운영을 통한 매출 불륨과 인지도 확보를 기반으로 전문적인 운영에 박차를 가해 코스메슈티컬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재생 전문 브랜드인 지디일레본에 젊은 감각을 더한 제품으로 국내는 드럭스토어, 해외는 중국시장을 토대로 신시장 창출을 꾀할 전

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세계 코스메슈티컬 시장은 약 50조원으로 추정되며 전체 화장품 시장 대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코스메슈티컬 시장은 5000억 원 규모로 매년 급성장 하여 2020년에는 약 1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

이동열 라보셀 대표는 "이번 합작법인 설립은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지디일레본의 흡소핑 채널과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활동에 전념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단기간 내 중국시장에서의 인지도 상승을 통해 중국 현지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인용 기자



봄슬레이 탑승한 김연아. 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오메가 평창 동계올림픽 서울전시장 오픈식에서 피겨 김연아(앞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알렉 조브리스트 오메가 타이밍 CEO, 박현철 롯데물산 대표, 최희진 스키치그룹코리아 사장이 봄슬레이를 타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남뉴스

# GC녹십자 작년 영업익 903억… 전년비 15% ↑

매출액은 1조2879억… 사상 최대



GC녹십자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903억원으로 전년보다 15.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2879억원으로 전년보다 7.5%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GC녹십자는 주력인 혈액제제, 백신 사업부분이 기록적인 실적 달성을 견인

했다고 설명했다. 각 부문별로 보면, 혈액제제 사업 실적은 탄탄한 내수 기반에 수출 호조가 이어져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백신 부분의 매출액 증가율은 12%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국내외 사업 호조와 효율적인 판매관리비 집약으로 영업이익은 매출보다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G

C녹십자의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은 21.5%로 전년의 22.8%에 비해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만 보면 GC녹십자의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한 3263억원을 기록했다. 회사 측은 4분기의 수익성 둔화 주요 요인을 제품폐기충당금, 계열사의 재고자산 정리 등 일회성 비용이 발생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올해에도 전사적 경영 효율화를 통해 내실을 강화하고 지속성장의 기반을 위한 과감한 미래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 큐젠바이오텍 美 진출 시동… 지사 설립 추진

큐젠바이오텍이 미국 시장에 진출을 시동을 걸었다. 큐젠바이오텍은 미국 지사를 설립해 필라와 항암제, 숙취해소제 등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큐젠바이오텍 측은 올해 개최된 'JP모건 컨벤션 바이오 쇼케이스'에 참석해 베타글루칸 및 베타글루칸 하이드로겔을 홍보한 결과 미국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큐젠바이오텍은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가교제 없는 베타글루칸 하이드로겔을 개발하고 국내와 미국, 일본, 중국 등 4개국에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이번 JP모건 컨벤션을 통해 큐젠바이오텍은 히알루론산 하이드로겔을 대체할 수 있는 베타글루칸 하이드로겔을 다국적 제약회사에 공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베타글루칸과 mRNA를 이용한



항암제 개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mRNA는 세포의 DNA가 단백질 생성기구에 하달하는 지시사항이 수록돼 있는 분자다. 미국 컨설팅기관인 그랜드뷰 리서치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 세계 베타글루칸 마켓이 7억2720만달러(약 7762억86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종대 대표(사진)는 "올해 JP모건 바이오 쇼케이스 참석을 통해 바이오 업계의 연구 개발 동향 및 투자 관련 정보를 얻은 것이 큰 소득"이라며 "미국 시장에서 베타글루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한 만큼 미국 지사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세계 시장에서 승부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용 기자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7-4625호(2017.9.19)



- 암에 걸리면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 치료비**가 훨씬 **비싼 암**도 있다던데?
- 60세** 넘어 **암** 걸리는 사람 참 많거든?



#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든든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

• 본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무료 상담 및 문의  
**지금 전화 주세요**

**080-763-7070**



# SK이노베이션, 직원 급여 1% 협력사에 전달

### 68개 협력사에 21.5억원

SK이노베이션 구성원들의 급여 1%기부 약속이 이행된다. 지난해 임단협을 통해 노사가 합의한 '구성원 행복나눔 1% 상생기부금'을 활용해 협력사와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SK이노베이션 노사는 5일 주력 생산기지인 울산CLX에서 회사 직원들 급여 1% 모금액을 협력사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2018 SK이노베이션 협력사 상생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노사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본급 1% 기부금과 회사의 매칭그랜트로 총 43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금액의 절반인 21억 5000만원을 68개 협력사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참석한 협력사들은 SK이노베이션과 동고동락(同苦同樂)해온 행복 파트너들"이라며 "협력사 구성원



2018. 2. 5. (월) SK이노베이션 | SK에너지 | SK증권 | SK이노베이션 | SK이노베이션 이정목 노조위원장, 오규택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이 '2018 SK이노베이션 협력사 상생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SK이노베이션

들에게 노사모두의 감사 마음을 담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달 대상에는 설비, 생산 등 직접 연관이 있는 회사를 비롯해 식당, 경비, 청소,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SK이노베이션과 함께 하는 전 분야 협력사가 포함됐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은 "협력사와 함께 하는 행복 파트너십을 사회적 가치로 선순환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적 상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metroseoul.co.kr

## 금감원 전통시장·저소득층 돕는 '일석이조' 나눔

금융감독원은 5일 KB국민은행, 한국국제기아대책과 함께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망원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상품권으로 구입한 떡, 건어물 등 생필품을 전국의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매년 설과 추석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나눔활동을 실시해 왔다.

이날 시장에서 생필품 일부를 직접 구매

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최홍식 금감원장은 "이번 겨울, 혹한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매서운 추위와 전통시장 방문객 감소라는 이중고(二重苦)로 시장 상인들의 고충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된다"며 "나눔활동을 통해 금융권이 전하는 온기가 시장상인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고 나아가 온 국민이 따뜻한 설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최홍식 금융감독원장(왼쪽 첫 번째)이 허인 K국민은행장(가운데), 서경석 기아대책 부회장과 포즈를 취했다. /금융감독원



KB국민은행 관계자와 어린이들이 'KB디지털멘토링 코딩캠프'를 갖고 있다. /KB국민은행

## KB국민은행 '디지털멘토링 코딩캠프'

KB국민은행은 지난 3일 사피엔스4.0과 함께 서울 중구 스페이스슈어 한화센터에서 'KB디지털멘토링 코딩캠프'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KB디지털멘토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언어인 코딩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된 KB국민은행의 사회공헌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도서벽지·대안학교 등 IT소외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코딩교육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일반학교 학생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코딩캠프는 '청소년의 멘토 KB! 디지털멘토링'의 일환으로 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코딩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IT재능을 찾아 진로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쌍용자동차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에 참가하는 휠체어컬링 국가대표팀의 우승을 지원하며 'G4 렉스턴'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 2일 대치 영업소에서 대한장애인컬링협회와 전달식을 갖고 오는 3월 9일부터 열리는 대회 기간 휠체어컬링 국가대표팀이 사용할 G4 렉스턴을 전달했다. 지난 2일 쌍용차 플래그십 스토어 대치영업소에서 쌍용차 국내영업담당 이광섭 상무(오른쪽)가 대한장애인컬링협회 최종길 회장에게 G4 렉스턴을 전달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신점 [神占] 운세 2월 6일 (음 12월 21일) 힐링운세 (www.healingunse.com) 060-800-8877

- 쥐**  60년생 새로운 것에 도전하세요. 72년생 변화를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84년생 주변의 충고를 받아 들이세요. 96년생 사업을 하는 분이면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 관리에 철저하세요.
- 소**  61년생 앞길에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3년생 어려움을 이겨낼 굳은 각오가 필요합니다. 85년생 개인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동의 이익에 봉사하세요. 97년생 마음에 약을 지워야 합니다.
- 호랑이**  50년생 사랑을 베풀도록 하세요. 62년생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하세요. 74년생 운기가 양호한 날입니다. 86년생 귀하가 노력을 안 해도 복이 저절로 들어오게 됩니다.
- 토끼**  51년생 세상을 혼자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63년생 책에서 좋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75년생 좋은 아랫사람을 구하면 힘이 됩니다. 87년생 질병 운전, 다툼을 조심해야 합니다.
- 원숭이**  52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64년생 몸의 작은 상처라도 정성껏 치료해야 합니다. 76년생 친구들과의 약속은 미루어 보도록 하세요. 88년생 마음이 잘 맞는 주위 사람과 상의하세요.
- 뱀**  53년생 몸이 아프고 마음이 심란합니다. 65년생 중독을 조심하세요. 77년생 고비를 잘 넘기면 좋은 결과 있겠습니다. 89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말**  54년생 얼지른 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66년생 반가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하루입니다. 78년생 상사와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90년생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게 좋습니다.
- 양**  55년생 선물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67년생 희식이나 모임 등에서 행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79년생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90년생 지나친 음주를 삼가세요.
- 원숭이**  56년생 배신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68년생 짝잘한 수입 등으로 재수가 좋을 것입니다. 80년생 술자리는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92년생 애정운이 길합니다.
- 닭**  57년생 너무 서두르는 것도 길하지 못합니다. 69년생 기분을 좀 가라앉히세요. 81년생 일의 성과가 태양처럼 빛납니다. 93년생 다 된 일 망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하세요.
- 개**  58년생 편안한 휴식은 약이 됩니다. 70년생 선후배의 도움을 구하세요. 82년생 재발된 병으로 가족에게 근심 주게 됩니다. 94년생 바른 마음과 집념을 가지고 분수를 알고 행동하세요.
- 돼지**  59년생 대처를 충분히 하세요. 71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83년생 여행을 떠나는 것은 무언가 얻기 위함입니다. 95년생 문제가 생기면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 김상희의四季



### 水火의 음양합

사주팔자 여덟자 중에 위에 있는 부호를 천간(天干)이라 명한다. 천간의 합을 간합이라하며 간합(干合)은 오행의 상생상극적(相生相剋)인 관계에서 합이 되는 것이다. 음과 양이 합되어 특별한 관계를 이루는 의미로서 애정지합, 음란지합, 다정지합등으로 말한다. 50대 후반의 중년 여인 M씨가 내방을 했다. 선생님, 제사주에 남자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정말입니다. M여인의 사주를 보면 임인생에 정화(丁火)생일이며 12월에 태어났다. 정화(丁火)와 임수(壬水)가 합을 이루고 있으며 월지(月支)에서도 해수(亥水)에 다시 임수(壬水)가 있다.

비슷한 여인 '달밤에 보이는 달'으로 남편이 풍류지인(風流之人)으로 볼 수 있다. 명월지상(明月之象)을 이루니 여인은 미모와 함께 재성(財星)이 천을귀인이라 재물 복이 많다. 남자를 만나지만 운이 힘들 때는 상대가 죽는 경우도 있는 팔자이다. 32대운에서 대부호가 들어 왔는데 귀문살이 있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저세상으로 갔다한다. 사주에 합이 있다는 것은 상대와 화합하려는 자세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과 같아 우선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충(神)이 있다는 것은 서로 견제하고 대립되는 것이다. 합도 어떠한 것은 합이 되어 유력하다. 어떠한 것은 무력하다고 하는데 이는 합하는 두 글자의 각자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는 힘이 왕하고 하나는 힘이 쇠하면 쇠한 것은 왕한 것에 따라가니 합력이 유력하다.

두 글자 모두 왕하면 합력이 무정하다. 임수가 들이 마시는 들숨이라면 정화는 내쉬는 날숨이고 사람이 들숨과 날숨으로 용천혈에서 단전으로 기가 흐르는 것을 목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임수가 잠재되어 있는 몸체라고 하면 정화는 이러한 몸체를 필요에 의해 쓰는 것과 같아 겨울에 새근새근 숨을 고르는 모양과 같다. 임수(壬水)는 바닷물이라고도 하지만 고요한 어둠을 말한다. 자궁과 같은 작은 공간에 가득 채워 넣은 정수를 뜻하며 정화(丁火)는 어둠을 밝히는 등촉으로 한밤에 남녀가 사랑을 속삭여 목(木)이라는 생명을 만들어 내는 것인데 생명에 근원인 임수가 에너지원인 정화를 만나면 목이라는 새싹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설들은 결과적으로 임수와 정화라는 글자의 물상적인 형태에 대한 해석이 된다. 겨울에 태어난 정임합은 찬기운을 들어 뜨거운 기운을 뿜어내는 호흡에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반복적으로 괴로움이 따르는 것이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전화운세상담 홍카페 10분 무료상담 이벤트!  
홍카페 접속 후 회원가입시  
추천인 아이디에 METRO 입력하면 10분 무료상담!!  
타로, 연애, 심리 1:1 전화상담 홍카페  
(www.hongcafe.com)

1		6		3	4		8
							3
	6			9			
4	6		8		2		
7	3		1	9			
8	5		6		3		
	8		3				7
2	4	9		1	5		6

		7		8		2		
	5							8
6		8	2		3	4		5
		1	4		2	9		
3								4
9		5		7		6		2
		3				7		
7				9	5	8		
	1							6

스도쿠 정답

9	8	5	1	7	6	4	3	2
5	2	1	9	4	8	3	5	6
4	7	6	2	3	5	1	8	9
6	4	3	8	9	2	5	1	7
5	9	8	6	1	4	7	2	3
2	1	7	5	8	9	6	4	3
3	2	4	7	6	1	8	9	5
1	5	9	8	2	3	6	4	7
8	6	4	3	5	9	2	7	1

문제 제공: 보너스



# 연금계좌 인출 순서



김현기 역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74

연금계좌에는 퇴직급여+세액공제 연금저축+기타 추가 적립금+수익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렇게 종합 관리하여 연금으로 받는 것이 2층과 3층을 활용한 연금 설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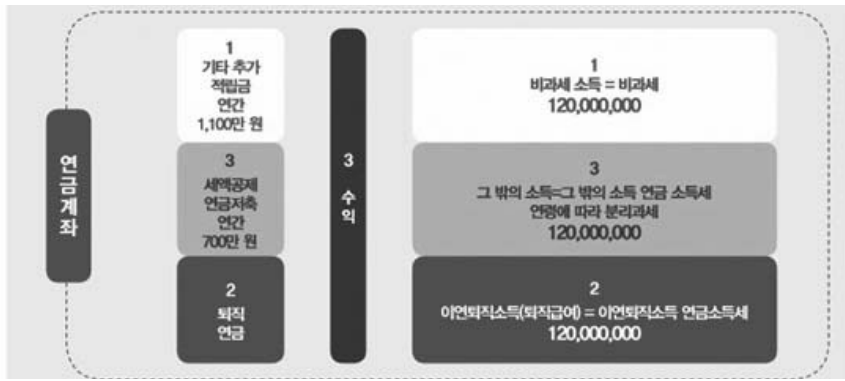
Q: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을 설계하여 인출할 경우 그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이유와 그 순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연금계좌를 활용한 연금 수령의 경우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이 연금계좌의 인출 순서입니다. 연금계좌의 연금수령시 반드시 인출 순서로 출금됩니다. 인출순서는 그림에서 1,2,3의 순서입니다. 이렇게 인출하는 것이 가장 적게 세금을 내는 방법입니다.

1번 기타추가적립금은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 수령 또는 출금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출금해도 무방합니다.

2번 퇴직급여는 세액공제연금저축과 수익부분보다 먼저 인출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급여의 연금소득세가 세액공제연금저축과 수익부분의 연금소득세보다 적어 먼저 출금합니다.

3번 세액공제연금저축과 수익부분은 고령일수록 세금(55~69세 5.5%, 70~79



세 4.4%, 80세 이상 3.3%)을 적게 냅니다. 제일 나중에 연금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은 연금계좌를 활용하여 퇴직연금, 세액공제연금저축, 기타추가적립금을 각각 1억 2000만원 씩 적립해 모두 3억 6000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이를 60세 이후 매달 100만원 씩 연금으로 수령(정액 확정기간형)할 때 인출순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인출 순서와 세금은 첫째, 기타추가적립금은 1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수령합니다. 기타추가적립금은 세금이 없습니다.

둘째, 퇴직급여를 1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수령합니다. 1억 2000만 원의 퇴직급여의 연금소득세는 일시금 퇴직소득세의 70%입니다. 매달 수령하는 퇴직연금은 10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연금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셋째, 세액공제연금저축을 1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이때 나이 대에 따라 세금을 냅니다. 80세에 도달하면

3.3%로 분리과세 됩니다. 이때 매달 수령하는 연금은 96만7000원 (100만원-3만3000원(3.3%))입니다.

넷째, 90세부터는 30년 연금 수령 시 발생한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설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 수령을 하고자 하면 '연금개시 신청(서)'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월리금 보장(형)인지 실적배당형인지 등 운용하고 있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셋째, 연금 지급 방식을 확정기간 정액식, 중신형, 전후후박형, 등의 방법으로 정합니다. 넷째, 최초 연금 개시일을 언제로 정할 것인지, 연금 수령 주기가 월, 분기, 반기, 년 등 어느 것을 선택할지 등도 결정합니다. 각각의 내용이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금융회사 컨설턴트와 상의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노모50연구소장



한국거래소, 태국거래소와 상호협력 MOU

한국거래소(KRX)는 5일 태국거래소(SET)와 자본시장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거래소는 이번 MOU를 통해 자본시장과 관련한 상호 정보제공, 정보기술(IT) 인프라 개선, 투자 및 비즈니스 기회 모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왼쪽)과 케사라 만추스리 태국거래소 이사장이 5일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자본시장 협력에 관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NH협은행,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공감 캠페인

NH협은행은 5일 서울 중구 하나로마트 서대문점에서 농협경제지주의 농축산물 전문 인터넷쇼핑몰인 '농협몰'과 상생협약식을 갖고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국민공감 캠페인'을 올해 말까지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대훈 NH협은행장(오른쪽)이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와 포즈를 취했다. /NH협은행

# 차별화된 메뉴는 매출향상의 기본



이상현 역

실패하지 않는 창업전략

입춘이 지났지만 계속 이어지는 강추위는 좀 더 지속될 모양이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기운이 찾아들게 될 즈음 여러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신메뉴를 개발하여 출시 준비를 서두른다.

하지만 근 몇년간 선보여진 몇몇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차별성 없는 유사한 메뉴 출시는 못내 아쉽기만 하다. 그렇다면 본사들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가맹점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소비자 관점에서 연구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상품을 보는 시각은 기업의 시각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상품 선택방식을 아는 것은 신메뉴를, 포함한 메뉴 전략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관점에서 보면 유망한 신메뉴가 될 수 있으나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메뉴

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 그러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성공하는 메뉴인지 아닌지는 소비자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제까지 없었던 차별화된 새로운 인정한 메뉴이어야만 성공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비자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기준은 본부가 소비자의 가치비 만족을 위해 무엇을 하면 되는가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새로운 메뉴개발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품(메뉴)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상품차별화전략은 자사의 상품을 경쟁상품(메뉴)과 구별되도록 하여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경지를 구축함으로써 고정 고객의 이탈과 신규 고객의 영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본사의 브랜드 이미지 전략에 연계성이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전혀 동떨어진 상품(메뉴)구성이 아닌 일관성이 있는 상품(메뉴)이어야 한다. 즉

본사가 소비자에게 보여 주고자 하는 컨셉과 이미지도 경영자원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셋째, 신메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본사 자체의 내부 의견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사전 시장분석 자료를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메뉴 개발을 위한 기획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장분석 자료를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및 시장적인 가치를 재검토, 확인함으로써 시장 및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메뉴와 맛(품질)과 가격의 수준을 설정하도록 한다. 특히 최근의 소비자들은 가성비를 넘어 가치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최근처럼 저성장 경기가 장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각종 마이너스 지표는 자영업 시장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본사도 살고 가맹점들도 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메뉴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 (컨설팅학 박사)



코웨이 블루버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봉사활동

코웨이는 비즈니스 전문가 조직 '블루버드'가 경기 광명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의 학습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삶의 가치를 전했다고 5일 밝혔다. 코웨이 블루버드는 대졸 사회 초년생으로 구성된 비즈니스 전문가들로 2010년부터 다양한 고객층 확보를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전국에 약 45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봉사활동에서 블루버드 40여명은 아동센터 시설을 새 단장하고, 지역사회 내 소외된 아동들의 방과 후 학습 환경 개선도 나섰다.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웨이

# 예보 부사장에 김준기 이사 선임



예보보험공사는 5일 김준기 예보 이사(사진)를 신임 부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1962년생인 김 신임 부사장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 IRPS대학원 GLI과정을 수료했다.

예보 홍보실장, 리스크관리2부 부장, 저축은행행정상하부장, 인사지원부장, 이사 등을 역임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 과장급 정보 △ 에너지수요관리과장 이경훈

◆외교부 ◇ 과장 △ 정책분석담당관 손창호 △ 정책공공외교담당관 정광수 △ 창조행정담당관 강유식 △ 재외공관담당관 장병원 △ 의견총괄담당관 이상민 △ 동북아과장

이상산 △ 동남아과장 권순현 △ 서남아태평양과장 위준석 △ 아세안협력과장 김해진 △ 북미2과장 김일범 △ 한미지위협정과장 장 원 △ 남미과장 박정오 △ 서유럽과장 윤지안 △ 아프리카과장 정현정 △ 인권사회과장 신희선 △ 국제안보과장 고상욱 △ 영사서비스과장 이원식 △ 북미유럽경제외교과장 조재홍 △ 국제에너지안보과장 신석홍 △ 대북정책협력과장 박형철 △ 국립외교원 교육운영과장 조아름 ◇ 팀장 △ 동북아협력팀장 남 진 △ 공공외교총괄팀장 박유리 △ 기획총괄팀장 임원재 △ 다자경제기구팀장 전지선 △ 민족공동체협력팀장 백운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중앙정보관리소장 이영미

◆국가보훈처 ◇과장급 정보 △ 감사담당관 김남현 △ 복지운영과장 안주생 △ 보훈의료과장 홍경화 △ 제대군인정책과장 양홍준 △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과장 우동교 △ 경기북부보훈지청장 김강훈 △ 강원동부보훈지청장 김동현 △ 경남동부보훈지청장 김남영 △ 충남서부보훈지청장 박종덕 △ 경북남부보훈지청장 김대훈 △ 국립입실호국원장 윤영석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급 정보 △사이버조사단 단장 권오상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정민수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 주선태 △기획조정실 고객지원담당관 신재식 △소비자위해예방과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김성근 △식품안전정책과 식품총괄대응팀장 김형준 △식품소비안전과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정용의 의약품안전국 마약정책과장 김명호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장 김현중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장 문은희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장 김성진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 관리과장 최지은 △의료기기 기준심사체계 개편추진단 TF 기준규격팀장 안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장 이호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장 박인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심사조정과장 오정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중앙약품과장 박정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바이오심사조정과장 최영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장 오호정 △식품

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심혈관계과장 윤미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구강소화기과장 최선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체외진단기기과장 이원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화장품연구팀장 손경훈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의료기기연구과장 김미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독성연구과장 이종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약리연구과장 서수경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옥기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김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김태영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최숙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정의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김동욱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통관리과장 이규식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이기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양창숙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통관리과장 정연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사업본부장 최희문 △ 회원본부장 강승룡

◆이주경제 △ 마케팅·사업 총괄과장 겸 동방성 편집국장 양규현

## 부음

▲ 최종열(전 한국일보 제작국 차장)씨 별세, 최지혜(지은·정육·정원씨 부친상, 윤원실(매일경제 경제부 기자)·박철(전 한국일보 사업국 차장)·김태호(미국 렉스로스 유망팀 연구원)·백병일(코리아타임스 문화체육부 기자)씨 장인상 = 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7일 오전 9시, 02-3010-2263.

▲ 문금덕씨 별세, 박영식(변호사·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문식진(주한미국대사관 상무관)·광식(전 동강대학교 교수)씨 모친상, 류선열(전 전남대학교 치과대학장)씨 장모상 = 4일,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6일 오전 11시, 062-220-3352~3.

**metr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1721-9800, FAX:021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주)중앙일보 김교준  
광고문의 021721-9851.3  
독자센터 021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10206



# 쇼트트랙 쌍두마차 심석희 최민정 스킨레톤 사상 첫 메달 윤성빈

## 평창 D-3, 금 기대주 누구?

쇼트트랙, '최다메달' 획득 기대  
'효자종목' 스피드스케이팅 유력

한국의 아름다운 설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은 메달 텃밭에선 '썩쓸이'를, 메달 유망 종목에선 '첫 메달' 수확을 노린다.

평창올림픽은 오는 9일 개막한다. 30년 만에 한국 땅에서 열리는 올림픽이자, 첫 동계올림픽 개최인 만큼 한국은 역대 가장 높은 순위를 목표로 한다.

한국의 목표는 종합성적 4위 달성이다. 한국은 7개 종목, 15개 세부종목에 218명의 선수를 내보내며, 이는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해 종합 5위를 달성, 역대 동계올림픽 최고 성적을 거뒀던 한국은 또 한 번 순위 경신을 노린다.

그동안 한국이 동계올림픽에서 수확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한 메달 53개는 모두 빙상 종목에서 나왔다. 이번에도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은 쇼트트랙이다. '쌍두마차'로 불리는 최민정과 심석희가 이끄는 여자대표팀이 든든히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올라있고, 소치올림픽 '노메달'을 기록했던 남자대표팀도 부쩍 오른 기량을 자랑하며 명예회복을 노린다.

쇼트트랙과 함께 '효자종목'으로 입지를 굳힌 스피드스케이팅도 메달 유력 종목으로 꼽힌다. 이 종목의 간판 스타



는 '빙속 여제' 이상화와 '빙속 황제' 이승훈이다.

이상화는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500m 올림픽 3연패를 노린다. 2017-18시즌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에서 이상화보다 앞선 성적을 썼던 고다이라(일본)와 경쟁 구도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훈은 평창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매스스타트 최강자로 손꼽힌다. 쇼트트랙 선수 출신인 그는 매스스타트뿐만 아니라 남자 5000m와 1만m 등에서도 메달 획득에 나선다.

평창올림픽에서 종합 최고 순위 경신이 기대되는 이유는 설상 종목에서도 메달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스킨레톤의 윤성빈은 평창올림픽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다. 올 시즌 6번의 월드컵 시리즈에서 금메달 4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한 윤성빈은 세계랭킹 1위에 올라있다. '스켈레톤 황제' 두쿠르스(라트비아)의 독주를 뚫는 평창의 흠이점까지 더해 스킨레톤 종목 사상 처음으로 한국에 올림픽 금메달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봅슬레이 2인승의 원윤종과 서영우도 평창에서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2015-16시즌 월드컵에서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랐던 두 사람은 올 시즌 중반 이후 월드컵 출전을 포기하고 평창올림픽을 위한 훈련에 집중해왔다.

스노보드 이상호도 메달권에 진입할

확률이 높다. 지난해 동계아시안게임에서 2관왕을 차지한 바 있다. 또 모글스키의 최재우, 김마그너스도 메달권 진입에 도전한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쇼트트랙 최민정 선수 (사진=뉴시스)

## 설극장가, '조선 코믹극'이 접수... '조선명탐정' vs '궁합'

### 영화 VS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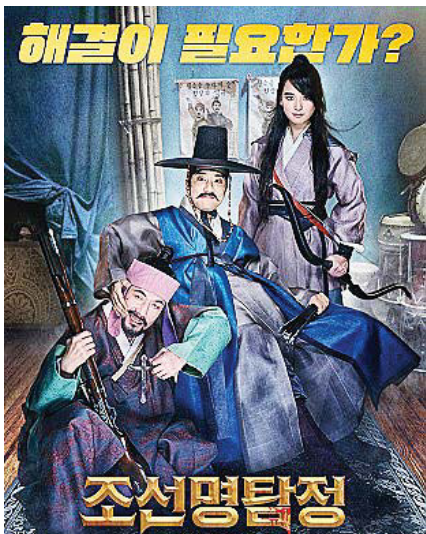
설 연휴, 극장가에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코믹 영화 두 편이 개봉한다. 바로 설극장가에서 꾸준히 사랑받은 국내 최초 코믹 수사 시리즈 "조선명탐정:흡혈 괴마의 비밀"과 참신한 소재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궁합"이다.

#### ◆설에는 역시 '조선명탐정'

먼저, 오는 8일 한국판 셜록홈즈라 불리며 독보적인 한국형 시리즈물의 명맥을 잇는 '조선명탐정' 세번째 이야기가 관객을 찾아온다.

'조선명탐정:각시투구俠'(2011)에 이어 '조선명탐정:사라진 놈의 딸'(2015)까지 매년 설 연휴에 개봉해 흥행몰이에 성공한 김석윤 감독은 올해 '조선명탐정:흡혈괴마의 비밀'을 선보인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이한 사건 앞에서 김민(김명민)-서필(오달수) 콤비가 의문의 여인 율영(김지원)을 만나게 되면서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이 펼쳐진다. 조선시대에 벌어진 '흡혈귀 살인사건'



이라라는 소재도 특별하지만, 이번 시리즈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김민-서필 콤비에 또 한명의 주인공이 추가된 것. 극 중 흥일점인 김지원은 첫 사극입에

#### 조선명탐정:흡혈괴마의 비밀

김명민-오달수 '8년 콤비' 기대

#### 궁합

친숙한 명리학, 스크린서 첫 선

도 불구하고 김명민, 오달수와 함께 자연스러운 연기를 선보인다. 김지원은 괴력을 소유했지만, 기억을 잃은 의문의 여성 율영을 맡았다. 액션부터 감정선까지 아우르는 김지원의 연연이 기대된다.

'조선명탐정' 시리즈의 백미 김민-서필 콤비의 케미스트리도 더욱 깊어졌다. 첫 시리즈부터 8년이란 세월이 쌓인 김민-서필 콤비의 껌딱지 케미와 괴력의 여인이 만들어가는 신선한 트리오 케미는 관객에게 기대 이상의 재미를 안길 예정. 게다가 사건 이면에 숨겨진 감동있는 사연이 반전을 선사한다.

막강한 연기 내공을 자랑하는 '연기본좌' 김명민과 스크린 천만 요정 오달수가 이번 설에는 어떤 활약으로 사건을 해결할지 확인해보자.

◆신년 운세와 함께 '궁합' 봐야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또 다른 코믹 영화 '궁합'(감독 홍창표) 역사화제작이다.

사주와 궁합은 오래 전부터 사람들의

일상에 깊숙하게 자리잡아 인간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명리학으로 발전해왔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점집이나 사주카페를 방문해 자신의 신년 운세를 점치거나 중요한 의사 결정을 앞두고 조연을 얻기도 한다. 이렇게 전국민에게 친숙한 사주와 궁합이 영화 '궁합'을 통해 처음으로 스크린에 펼쳐진다.

'궁합'은 '관상' 제작진의 두번째 역학 시리즈다. '관상'이 다소 선이 굵은 역사 드라마였다면, '궁합'은 밝고 유쾌하며 가볍게 보기 좋은 영화라는 점이 차별점이다.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궁합'은 조선 최고의 역술가 서도윤(이승기)이 혼사를 앞둔 송화옹주(심은경)와 부마 후보들 간의 궁합 풀이로 조선의 팔자를 바꾸려는 이야기다. 개인의 기구한 운명부터 각기 다른 사주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인간들의 사연까지, 사주팔자에 얽힌 모든 인연을 총망라하는 스토리가 그려진다.

충무로를 대표하는 20대 여배우 심은경과 예능이면 예능, 드라마면 드라마 다양한 분야에서 중형 무진하는 대세 배우 이승기가 혼사를 앞둔 옹주와 조선 최고의 역술가로 만나 앙상블을 선보인다.

전 세대를 관통하는 최강 캐스팅과 유쾌한 스토리, 흥미로운 소재로 기대감을 모으는 영화 '궁합'은 오는 28일 개봉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오늘의 날씨**

2월 6일  
음력: 12월 21일

수도권 날씨  
**-14~-6°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7:32 | 해질 / 18:01

연천 -18/-6  
동두천 -17/-5  
가평 -17/-6  
파주 -19/-6  
서울 -14/-6  
양평 -17/-5  
인천 -13/-7  
수원 -14/-7  
용인 -14/-7  
평택 -15/-5

백령도 -10/-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스포츠 한줄 News**

▲ 국제올림픽위원회(IOC·사진)가 5일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결정으로 도핑 의혹에서 벗어난 러시아 선수와 코치 15명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불허했다고 발표했다.

▲ '평창동계올림픽 휴전결의'(the Olympic Truce Resolution for PyeongChang)를 지지하고 이번 대회를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도모하는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겠다는 다짐을 하는 '평창올림픽 휴전벽' 제막 행사가 5일 평창선수촌에서 열렸다.

▲ '탁구 유망주' 조대성이 '골프 여제' 박인비가 속한 매니저먼트사 브라보앤뉴와 계약했다.

▲ 신태홍호가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국내와 선수들의 마지막 점검 무대였던 터키 전지훈련을 마치고 5일 귀국했다. 오는 3월 19일 유럽 원정 평가전을 위해 다시 모일 예정이다.

▲ 안병훈이 2018년 처음 출전한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대회 웨이트 매니지먼트 피닉스오픈에서 공동 23위(9언더파 275타)에 올랐다.

▲ 장애인 노르딕스키 간판 신의현(창성건설)이 2018 부오카티 세계장애인노르딕스키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2018 평창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전망을 밝혔다.

▲ 유도 전 국가대표 이원희와 탁구 전 국가대표 윤지혜가 오는 28일 결혼식을 올린다.



# “종이책보다 전자책”... 대학생, ICT 시대에 발 맞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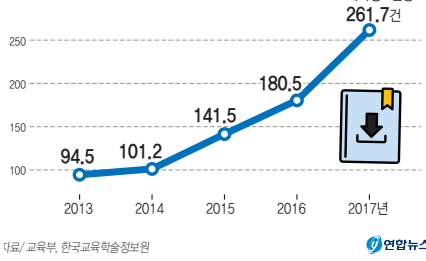
## 전자자료 이용건수 177% 증가 종이책 대출 최근 4년 연속 감소 “전자저널 등 교육 향상에 기여해야”

‘책 읽는 대학생’들이 갈수록 줄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시대에 맞게 대학 도서관에서 ‘종이책’ 대출은 줄어드는 반면, ‘전자책(e북)’ 이용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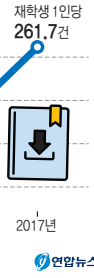
대학생들이 종이책은 덜 보는 대신 전자책 등 전자자료 이용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종이책’ 대출은 최근 4년 연속 감소한 반면 전자자료 이용건수는 같은 기간 177% 증가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국 423개 대학의 소장도서와 이용현황, 자료 구입비 등에 관한 ‘2017년 대학도서관 통

대학도서관 전자책 이용 추이  
도서관이 설치된 전국 423개 대학 대상  
재학생 1인당 상용 데이터베이스 이용 건수 조사



자료/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계조사 및 분석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재학생 1명이 1년에 대출하는 종이책은 2017년을 기준으로 평균 6.5권으로 4년 전인 2013년 8.7권보다 감소했다.

재학생 2만 명 이상 대규모 대학 중 재학생 1인당 대출 책 수는 서울대가 24.9권

으로 가장 많았다. 성균관대 20.9권, 연세대 20권, 이화여대 18.5권, 고려대 15.9권, 부산대 12.0권, 동국대 11.9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제별 대출 비율을 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문학분야 책 비중이 22.0%로 가장 높았고, 사회과학 19.5%, 기술과학 12.9%, 예술 8.9% 순이었다. 전문대는 문학 29.6%, 기술과학 19.5%, 사회과학 14.1%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학도서관이 소장한 전자자료 이용 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재학생 1인당 상용 데이터베이스(DB) 이용 건수’는 2013년 94.5건에서 2017년 261.7건으로 177% 증가했다.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선호도가 전자저널, 전자책(e-Book) 등 전자자료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도서관의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조금씩 감소하다가 2017년에는 전년 대비 4.1% 증가한 평균 10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4년제 대학은 11만8000원이었고, 전문대학은 2만8000원이었다.

자료구입비의 유형을 보면 전자자료가 65.5%로 가장 많았고, 도서자료 25.9%, 연속간행물 7.6% 순으로, 전자자료 구입 비율은 2013년 57.9%에서 2017년 65.5%로 매년 증가했다.

대학 도서관의 ‘재학생 1인당 소장 도서 수’는 매년 증가해 2017년에는 64권으로 4년 전인 2013년 대비 10권 증가했다. 4년제 대학은 72권, 전문대학은 33권이였다.

대학별 소장도서는 서울대가 502만 8000권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대 336만7000권, 고려대 335만8000권, 연세

대 325만7000권 순이었고, 재학생 2만 명 이상 대규모 대학 중 재학생 1인당 소장 도서는 서울대가 176권, 경북대 111권, 고려대 90권, 홍익대 85권 순이었다.

소장도서의 주제별 비율을 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사회과학 분야가 20.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문학 14.3%, 기술과학 13.2% 순. 전문대학은 문학도서 18.6%, 사회과학 18.5%, 기술과학 16.4% 순으로 집계됐다.

박성수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대학도서관이 최근 학생들의 자료 이용 추세를 반영해 도서와 전자자료 구입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교육부에서도 전자저널 예산 추가 확보 등을 통해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교육과 연구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전문대 졸업 軍기술부사관, 학사학위 받는다 직장인 한 달 용돈은 ‘57만7000원’

## 교육부-국방부 협약으로 인가 ‘2018 e-MU’ 210명 학생 모집

올해부터 전문대를 졸업한 군 기술부사관들이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면서 4년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와 한국전문화교육협회는 ‘2018학년도 전문대학 e-MU (e-Learning Military University)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신규인가 평가’ 결과, 2018학년도에 5개 전문대학 7개 모집단위에서 210명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e-MU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란 전문학사를 소지한 기술부사관이 온-오프라인 이수를 통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 교육부와 국방부가 협약을 통해 올해 첫 학사학위를 인가해 학생을 뽑게 됐다.

앞서 지난 2013학년도부터 경기과학기술대 자동차과, 인하공전 항공기계과 등 6개 대학 8개 학과에서 기술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e-MU 전문학사과정으로 운영되면서, 지금까지 1174명이 전문학사를 받았고, 현재 재학생 1059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는 4년제 학사학위를



e-MU 오프라인 실습수업 모습

/한국전문화교육협회

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 선정된 대학은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기계공학과, 대덕대 총포광학과, 상지영서대 국방정보통신공학과, 구미대 특수건설기계공학과·헬기정비공학과, 전남대 특수장비공학과·특수통신공학과 등 5개 대학 7개 학과로 각 학과별 30명 정원이다.

현지 기술부사관들의 학습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이 50%까지 허용되고, 신입생 전원에게 교육용 노트북 지급, 등록금 50%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

된다.

전문대교협 황보는 사무총장은 “일·학습병행을 통해 지금까지 약 5만 여명이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졸업했다”며 “이번 e-MU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신규 개설을 통해 군 인력 맞춤형 일·학습병행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황 사무총장은 “전문대교협은 기술부사관 외에도 복합인턴사,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학습자의 직업심화교육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용수 기자

직장인의 한 달 용돈이 10년 전보다 26.8%포인트가 오른 57만 7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한 달 평균 용돈’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용돈은 57만7000원으로 10년 전 45만5000원보다 12만2000원(26.8%포인트) 올랐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직장인 601명이다.

당시 물가상승률이 2.8%였고 이후 매해 한 자리대 상승이 이어져 도합 20% 가량 상승했음을 감안하면 직장인 용돈 증가 추세 역시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치로 늘어났다.

미혼 응답자는 평균 72만5000원을, 기혼 응답자는 43만8000원을 사용한다고 답해 미혼이 기혼보다 39% 이상 더 쓰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전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혼은 54만6000원, 기혼은 34만2000원을 월 평균 소비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다. 남성의 경우 한 달 평균 용돈을 53만5000원 가량 소비하는데 반해 여성은 62만2000원이라고

응답해 여성이 남성보다 8만7000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전엔 남녀가 각각 46만원, 43만6000원씩 지출한다고 나와 남성의 지출이 여성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용돈지출 항목으로는 ‘식비’가 2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미 또는 문화생활(14.7%) ▲교통비 및 유류비(14.6%) ▲유형비(12.6%) ▲의류, 화장품 등 의외관리(12.5%) ▲교육비, 자기개발비(3.4%) ▲부채, 대출 상환(2.6%) 순이었다.

10년 전 지출항목 1위는 ‘유형비(28.2%)’였으나, 당시 2순위 지출 항목으로 지목된 ‘식비’(25.7%)의 지출 비중이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음을 본다면, 직장인들이 유형비 지출 소비하는 금액 규모가 절반 이상으로 줄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직장인들 10명 중 6명은 용돈을 주로 신용카드 형태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만 사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7.6%에 불과했다.

/정연우 인턴기자 yw964@

## 선거연령 19세 → 18세 제안 “환영”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학제개편을 통해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자고 제안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5일 ‘만 18세 선거권 하향,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환영합니다’ 제목의 논평을 내고 김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학제개편과의 연계를 전제했지만,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공감을 표명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선거연령 만 18세 부여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며, 학교교육에서 학생 생활과 관련된 사회현안 토론 수업 등을 강조하는 학생시민 교육지원 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8 서울사회적경제 신년회’에 참석해 건배제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선거연령 만 18세 부여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며, 학교교육에서 학생 생활과 관련된 사회현안 토론 수업 등을 강조하는 학생시민 교육지원 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한용수 기자

## 서울디지털대학교 김재홍 총장 취임

김재홍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사진)이 취임했다.

김 총장은 5일 서울 강서캠퍼스에서 열린 제8대 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과 온라인 대학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과거 정부의 사이버대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지나치게 취약했다”면서 “향후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 문재인 정부에서 사이버대학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기대했다.

한편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2001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원격대학으로 현재 24개 학과에 1만3000여명의 재학생이 있다.



/한용수 기자



/서울대학교

## 서울대 공과대학 ‘국제 창업경진대회’ 개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 한국-타자니아 적정과학기술 거점센터(이하 iTEC) 주최로 ‘국제 SMART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iTEC는 서울대가 운영하고 과학기술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는 ODA(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복지증진을 원조) 사업으로 안성훈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주도로 타자니아의 에너지·물·농업·보건·교육·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진대회는 서울대 iTEC, NM-AIST, 대한산업기술지원단(UNITEF), e3임과위가 주최했다. 아프리카에서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회에는 총 83개의 학생팀과 스

타트업 기업팀이 참여했다. 본선에 오른 24개 팀은 최종 발표를 통해 창업 내용에 대한 기술, 사회공헌, 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받았다.

대상은 식물에 기반한 병충해 제거방법을 제안한 NM-AIST·아루사 회계대학팀이 수상했다. 부상으로 미화 천 달러와 미국 워싱턴주립대(WSU) 주최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경비 전액이 주어졌다.

2등상은 선진국의 노인들이 개도국의 어린이들에게 온라인으로 영어를 가르쳐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 서울대·캐나다 워털루 대학팀이 수상했다.

/정연우 인턴기자





[마켓·부동산]  
“금투협  
4차혁명 준비위  
선제적 대응”  
12



[유통]  
CJ오쇼핑  
태국 진출 5년만  
‘흑자’  
13



글로벌 수소차 경쟁 “넥쏘도 있소”

# 미래차 현실로... 5분 충전으로 세계 최장 달린다

(609km)

수소전기차 차종비교	현대자동차 '넥쏘'	도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주행거리	한국 인증: 609km / 북미: 595km	북미: 502km	북미: 589km
타입	중형 SUV	중형 세단	중형 세단
차체 (전장/전폭/전고/축거)	4,670/1,860/1,630/2,790mm	4,890/1,815/1,535/2,780mm	4,895/1,875/1,475/2,750mm
출시	2018년 3월 (예정)	2014년 12월	2016년 3월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시킨 신형 수소연료전지전기차(FCEV) '넥쏘(NEXO)'의 항속거리가 공개됐다.

현대차는 다음 달 출시를 앞둔 수소전기차 '넥쏘'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609km로 인증됐다고 5일 밝혔다. 기존 1세대 투싼 수소전기차(415km)보다 40% 이상 증가된 수치다.

현대차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모터스튜디오 고양과 강원도 평창 등에서 '넥쏘 미디어 체험 행사'를 열고 넥쏘의 구체적 제원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공인된 넥쏘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609km, 복합연비는 수소 1kg당 96.2km(17인치 타이어 기준)이다. 5분 이내 짧은 충전 시간에 채울 수 있는 최대 수소량은 6.33kg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세계 수소전기차 가운데 가장 길다.

경쟁 상대인 도요타의 '미라이'(502km)와 혼다 '클래리티'(589km) 등은 아직 500km대에 머물고 있다.

덴마크의 섬 이름인 '넥쏘'는 첨단 기술의 의미를 담고 있다. 동시에 고대 게르만어로는 '물의 정령(Water Spirit)', 라틴어와 스페인어로는 '결합'을 뜻하

## 현대차 자율주행 수소전기차 공개 1회 충전 주행거리 609km 인증

### 충격·파열시험 등 안전성 강조 주행 보조 등 첨단 편의시설 탑재

### 충전 인프라 확대·정비 서비스 제공 5년간 1만대 누적 판매 달성할 것

는 단어다. 산소와 수소가 합쳐 물 이외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수소차의 특성과 친환경적 특징을 강조하기 위한 이름이다.

내장재까지 바이오 플라스틱·패브릭·식물성 도료 등 'UL'(미국 인증기관) 인증 바이오 소재를 사용했다.

현대차가 넥쏘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 중 하나는 안전성이다. 연료인 수소가 가연성이라 폭발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현대차는 수소탱크 충격시험, 파열시험 등을 포함한 안전 인증시험을 거쳤고, 기존 충돌시험 항목에 더해 수소밸브 부위 직접 충돌, 후진 시 수소탱크 하부 타격시험, 화재 안전성 평가 등을 통

해 수소 안전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넥쏘의 최대 강점은 현대차의 첨단 기술력이 집약된 ADAS(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HDA)은 물론, 차선 변경 시 뒤·옆 상황을 운전자가 볼 수 있는 '후측방 모니터',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LFA),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시스템'(RSPA) 등 첨단 안전·편의시설이 탑재됐다.

LFA는 시속 0~150km 속도에서 차로 중앙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며, RSPA는 운전자가 하차한 상태에서도 주차·출차를 자동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넥쏘는 또 수소탱크에 따른 수소전기차의 적재·실내 공간 한계를 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일원화된 3개의 탱크 시스템을 적용했다. 동급 내연기관 차량과 비슷한 수준의 839L(미국 자동차공학회 기준)의 적재공간을 확보했다. 기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투싼(TL-796L)이나 투싼 수소전기차(675L)보다 넓다.

넥쏘의 판매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대차가 일반 중형 SUV 수준으로 맞추는다는 방침이어서 4000만원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차는 넥쏘 출시와 함께 수소전기차 수요를 늘리기 위해 충전 인프라 확대에 집중한다. 우선 여주휴게소를 시작으로 앞으로 정부, 지역자치단체, 민간 에너지 업체와 함께 전국적으로 충전소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자체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 일부도 민간에 개방한다.

전국 22개의 직영센터에서 수소전기차 전담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소연료전지 부품의 품질 보증기간도 기존 '5년-10만km'에서 '10년-16만km'로 늘린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계획에 맞춰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누계판매 1만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권문식 현대차 연구개발본부장은 "1998년부터 시작된 현대차의 과감한 수소전기차 투자와 연구개발의 성과를 넥쏘를 통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소전기차란 연료전지에 충전한 수소와 공기 중 산소가 반응할 때 나오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차세대 친환경차를 말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